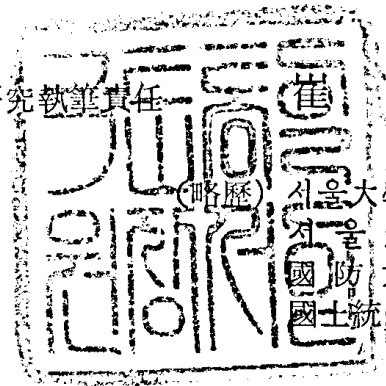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與件

北方三角關係展望과 그것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研究執筆責任



榮

(略歷)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過程修了 (1965)
서울農大 助教授 (1968)
서울國防大學院 副教授 (1969~)
國土統一院 非常任研究委員 (1975)

刊行責任

金炳璘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問題의 提起	3
2. 華国鋒体制의 狀況變數	5
가. 社會主義的 現代化路線에 있어서의 葛藤	5
나. 華国鋒体制와 戰略選擇의 相關性	6
3. 中共에 있어서의 國防建設	13
라. 外交政策의 相互關聯性	13
4. 蘇聯共産党才 25次大会 에서의 對中共政策	26
5. 北京政變後의 中·蘇關係現況	31
6. 中·蘇關係의 向方에 대한 妥當性檢討	33
가. 想定可能한 假定들의 明暗	33
나. 變數體系(假定群)	44
(1)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에 있어서의 諸假定	45
(2) 「統制된 對立의 持續」에 있어서의 諸假定	46
다. 妥當性 檢討	47
7. 中·蘇의 對韓半島政策	55
8.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	61

9. 北韓・中共 및 北韓・蘇聯의 關係現況	63
10. 北方3角關係의 展望	65
11.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71
12. 우리의 對策方向	74
※ 要約添附	58

1. 問題의 提起

北方3角關係의 展望은 3段階의 發展論理에 따라 分析하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 ① 中·蘇關係의 向方에 대한 妥當性 檢討
- ② 中·蘇關係와 北韓의 自主路線과의 相關關係
- ③ 上述한 妥當性檢討와 相關關係를 兩軸으로 한 北方3角關係의 展望

才1段階의 『妥當性檢討』를 위하여 中共과 蘇聯 兩當事國의 現況을 살필 必要가 있다. 그런데 中·蘇關係에 있어서는 中共의 態度가 보다 重要하기 때문에 中共의 現況을 詳細하게 分析하기로 한다. 우선 「華國鋒體制의 狀況變數」를, 「社會主義的 現代化路線에 있어서의 葛藤」과 「華國鋒體制와 戰略選擇의 相關性」이라는 兩側面에서 分析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才3勢力으로서의 軍의 役割이 「北京政變」에서도 立証하드시 事實上 열쇠를 쥐고 있는 것 만큼 「國防建設과 外交政策의 相互聯繫性」을 考察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次黨大會에서의 蘇聯의 對中共政策을 簡略히 一瞥하고 나서, 「北京政變後의 中·蘇關係現況」을 個條項으로 적어 보기로 한다.

才2段階의 『中·蘇關係와 北韓의 自主路線과의 相關關係』를 分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設定해 보기로 한다. 즉

첫째 : 中·蘇의 對韓半島政策

둘째 :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

셋째 : 北韓·中共 및 北韓·蘇聯의 關係現況

才 3 段階의 『北方 3 角關係의 展望』은 上述한 才 1, 2 段階의 結果를 基礎로 하여 分析될 것이며, 이 展望分析은 곧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展望의 豫測과 影響이 導出하면, 이에 대한 『우리의 對策方向』이 提示될 것이다.

本課題에 있어서의 全體的인 分析 「틀」은 上述한 3 段階의 發展論理와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對策方向으로 設定될 것이다. 그러므로 全體的인 分析 「틀」 그 自体는 역시 3 段階樣式에 따른 것이다.

2. 華国鋒体制의 狀況變數

가. 社會主義的 現代化路線에 있어서의 葛藤

周恩來 死亡·鄧小平失脚·毛澤東死亡·江青四人組의 肅清 및 華国鋒登場 등에서 表現되는 中共領導体制의 向方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두 路線의 対立」 즉 生産關係와 意識의 變革(階級鬭爭論)에 生産力向上爲主(唯生産力論)이라는 路線鬭爭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오카베 教授는 이 路線鬭爭을 「社會主義的 現代化의 矛盾」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그 所論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中共을 今世紀內에 現代化된 社會主義強國으로 키운다는 目標은 毛澤東의 指示에 의한 것이다. 文革派的인 思考에 의할 것 같으면, 이 目標은 階級鬭爭을 重視하고 社會主義的 共產主義的인 意識을 培養하므로써 達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現美的으로 이러한 方法에 의하여 經濟發展이 可能한가의 與否이다. 今世紀內에 中共經濟가 世界의 前列에 서기 위해서는 急速한 高度成長과 技術革新이 隨伴되지 않으면 안 된다. 過去의 美例가 表示하는 바와 같이 階級鬭爭重視論이 過度하게 強調되면 그 다음에는 反動으로 生産意欲의 低下, 技術水準 專門水準의 低下와 같은 現象이 일어나기 쉽다. 그 結果 政治意識 보다도 物質刺戟, 階級鬭爭보다는 專門化의 重視와 같은 政策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大躍進運動과 그 以後의 經濟調整期가 그러한 사이클의 典型的인

예였으며, 또한 文化革命과 이에 잇다른 脫文革現象(1972년에 顯著했음)도 그 한 예이다. 1)

이러한 사이클現象은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있어서의 一般性向이거니와, 이 放(革命)과 収(建設)의 基本的인 葛藤關係가 앞으로의 中共領導(指導)체제의 向方を 가름하는데 重要的 因子가 되는 것이다. 즉 文革派가 拳論하는 唯生産力論은, 이른바 「3差解消」²⁾를 바라는 毛澤東의 意志에 拒逆하는 小부르조아現象을 낳아, 中共을 修正主義化해 가는데, 이것은 요컨대 毛澤東의 正統이데올로기로 볼 때 容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脫文革現象以後의 「反潮流運動」, 「批林批孔運動」, 「프롤레타리아獨裁理論學習運動」 등의 連続된 意味 内容이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이클의 運動은 또 「反動」을 낳을 수 밖에 없는데 數次에 걸친 反復에서 招來된 「騷動」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兩路總의 現實的 折衷이 事實上 要請되었던 것이며, 그 代辯者가 周恩來總理였던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毛澤東의 党主席職과 党中央軍事委員會主席職을 引繼받은 華国鋒의 役割이 注目的 対象이 된다. .

나. 華国鋒체제와 戰略選択의 相關性

華国鋒은 林彪事件을 主動的으로 處理한 毛澤東 直系의 人物로서 文革派의 一員임은 周知의 事實이나 正統이데올로기의 宣傳担当

者 하고는 달리 実務의 責任者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形式이건 上述한 두 路線 즉 階級鬭爭論과 唯生産力論의 均衡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美務陣의 「現實拘束性」이다. 그 端的인 例가 蘇聯國境警備隊員 3名을 釈放³⁾ 하는데 있어서 華國鋒이 重要한 役割을 担当한 것을 指摘할 수 있다. 물론 이 釈放決定은 毛澤東의 裁可를 받지 않고는 執行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므로 이 釈放事件이 던지는 意味는 큰 것이다. 文革의 過程에서 鄧小平을 逐出하고 다시 復權시켜 周恩來라는 架橋工作人의 指導 아래 右傾的 折衷主義를 默認한 毛澤東이 또한 그를 失脚시킨 것을 보면, 그리고 毛가 죽은지 3個月이 지나는 過程에서 黨主席職을 결국 華國鋒이 引受한 이 時点에서 觀察한다면, 今後 當分間은 華國鋒派의 一種의 左傾的 折衷主義가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右傾」이니 「左傾」이니 하는 意味內容은 基本的으로 毛澤東思想과 路線의 테두리 內에서의 傾向을 뜻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르루킹스研究所의 『美國·中共·軍備콘트롤』(1975年)에는 中共의 廣汎한 戰略選擇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들고 있다. 이 戰略選擇을 毛死亡後 指導體制의 再編成類型과 「맷취」시켜 보면 華國鋒體制의 向方을 測定하는데 貢獻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詳細히 그 論旨를 적어 보고 上述한 類型과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㉑ 戰略核兵器의 急速한 強化, 高價의 在來兵器에는 比較的 적은 財源을 充當하여, 侵略防衛로서 消耗型의 「人民戰爭」에 크게 依存한다. (毛澤東戰略)

이 戰略의 理論的 根拠는 中共에 있어서, 가장 危險한 것이 核에 의한 威脅이며 이것은 核兵器에 의해서만 阻止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可能한 財源은 이러한 種類의 兵器에 될수 있는 限 早速히 重點的으로 充當해야 한다. 在來兵器로서 蘇聯 및 美國과 「시리어스」하게 競爭하는 것은, 核兵器와 強力한 地方分權的인 經濟로 부터 많은 財源을 流用하는 結果가 되어 이것은 防衛를 위한 人民戰爭을 遂行할 最善의 基盤은 되지만, 同時에 核兵器에 있어서는, 貧弱한 目標을 賦與하게 될 것이다.

이 戰略의 重要한 弱點은, 蘇聯이 中共의 一部를 奪取코자 할 때에 充分한 防衛가 不可能하다는 點이다. 中共은 新疆과 滿州를 強力히 防衛하여 그 征服을 蘇聯에 대해서 값비싸게 할만한 在來戰力은 갖지 못할 것이다. 中共은 核戰力의 強化가 蘇聯의 核攻擧에 대한 抑止力의 增大에 한 몫 할 수 있다고 하는 淸스 - 그렇게 하면 蘇聯이 中共에 대해서 破壞的인 核攻擧으로 反擊할 것을 알면서도 核兵器로서 蘇聯의 重要한 中心地를 強打하여 中共은 必死的으로 蘇聯에 損傷을 입힐지도 모른다고 하는 恐怖心을 造成하므로써 大規模的인 通常攻擧의 危險을 減少케 할 것이다 - 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戰略은 近隣諸國에서 행해 지는 美國의 攻擊 혹은 直接 中共沿岸에 대해서 向해 지는 攻擊에 대한 準備를 不充分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危險은 當面한 美國政策의 傾向을 判斷하는 限, 무릅쓸 價值가 있다고 中共은 看做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攻擊이 今後 數年間 있을 수 없다고 判斷하면, 獲得된 時間은 보다 커다란 長期的 威脅 — 核威脅을 阻止하는 中共의 能力向上에 가장 有效하게 使用될 것이다.

- ㉔ 戰略核兵器를 穩健한 페이스로 繼續 開發하는 한편, 通常兵力 近代化에 더 많은 財源을 돌려 人民戰爭에 대한 重點을 減少한다 (職業軍人の 戰略)

이 戰略의 理論的 根柢는 蘇聯의 中共에 대한 가장 있은 攻擊은 中共의 核施設破壞 혹은 中共領土의 一部占領을 겨냥한 限定的인 것이란 데 있다. 中共은 이미 蘇聯의 核攻擊에 대한 若干의 抑止力을 提供하기에 充分한 核兵器를 保有하고 있으며 지금의 生産率이 增進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核戰力은 着實하게 增加할 것이다. 核兵器는 蘇聯에 의한 核兵器 使用에 관한 政治的 抑制의 함께 蘇聯의 核攻擊을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 在來戰力의 近代化遲延을 희생으로 하고 戰略核兵器의 生産을 促進할 計劃을 強制的으로 作成했다 하더라도 蘇聯의 核攻擊에 대한 優劣의 均衡이 大幅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中共은 長期的 消耗戰에 대한 커다란 防衛力이 있기 때문에 中共에 대한 蘇聯의 全面的인 在來

戰力에 의한 攻擊도 있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中共은 在來戰力近代化에 많은 財源을 投入하여 가장 많이 豫想되는 非常事態에 準備하여 全的으로 準備를 해야 한다.

蘇聯의 海軍에 의한 威脅은 그렇게 危險하지 않으며 魚雷艇과 같은 比較的 安価한 投資로서 充足되기 때문에 最大의 重點은 地上 兵力과 空軍에 두어야 한다. 海軍力 특히 潛水艦은 美國의 攻擊에 대해서 一層 重要할 것이다. 蘇聯의 威脅이 훨씬 切迫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海軍의 要求에는 낮은 優先順位를 賦與해도 괜찮을 것이다.

㉔ 戰略核兵器의 均衡의 開發, 近代化의 在來兵力, 人民戰爭의 準備 (官僚的 戰略)

이 戰略의 理論的 根拠는 各種 威脅의 緊急性에 관한 서로 對立하는 判斷中에서 妥協을 發見하여 여러 가지 軍事部門, 政府各省의 財源要求를 均衡케 하는데 있다. 이것은 또한 戰略核計劃을 運用하는 者와 같은 中央集權的 政府를 支持하는 職業軍人の 要求와, 人民戰爭理論이 希求하는 經濟의 地方分權化에 의하여 政治權力이 強化되고 空·海軍보다는 陸軍의 近代化에 더 많이 重點을 두는 軍區의 強力한 司令官들의 要求와의 均衡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程度까지는 中國共產黨體制에 있어서의 「紅」(思想)과 「專」(技術) 간에 繼續되고 있는 論爭의 妥協을 代辯할 것이다. 4)

이 戰略選擇들과 「北京政變」直前の 時点에서 毛死後 指導体制의 再編成을 類型化하여 正式圖表로 表示하면 <表1>이 될 것이다.

<表 1.>

毛死後 指導体制의 再編成과 戰略選擇의 相關性

毛死後指導体制의 再編成類型	戰略選擇類型
① 華國鋒流의 左傾的 折衷主義 ② 上海派의 執權	㉓ 毛澤東戰略
⑤ 軍部の 軍事管制体制	㉔ 職業軍人の 戰略
③ 「부즈」한 集團指導体制 ④ 鄧小平流의 右傾的 折衷主義	㉕ 官僚的戰略

이 類型分析은 서로 중첩되는 部分이 많고 確然하게 正式化하기는 어려운 點이 많으나 그런대로 社會主義的 現代化路線에 있어서의 사이클現象과 이 現象에서 不可避하게 浮刻되는 左·右傾的 折衷主義의 必要性을 前提로 한다면, 再編成類型중에서 優先順位는 역시 ①과 ④ 즉 華國鋒에서 代辯되는 左傾的 折衷主義와 鄧小平과 같은 이른바 走資派에서 表出될 右傾的 折衷主義의 順으로 될 수 있다. 물론 이 推論에는 毛澤東 死後에 黨·政·軍에 걸쳐서

의 一大權力鬭爭 — 中共版 天下大亂狀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이 앞선다.

이렇게 推論이 可能하다고 한다면 (실지 北京政變 以後 現時點에 이르기까지의 狀況을 보면 이 推論은 大体로 맞은 것 같다), 戰略選択類型에 있어서는 ㉑와 ㉒ 즉 毛澤東戰略과 官僚的 戰略에 있어서 ㉑의 基本志向性 속에서 ㉒와 並存하여 妥協을 모색할 수 있다는 論理的 歸結이 可能하다.

따라서 이러한 戰略選択類型 즉 毛澤東戰略이 계속 採択되거나 또는 官僚的 戰略과 妥協을 한다면, 中共의 外交政策은 「對美接近·對蘇牽制」라는 路線을 毛死後에 있어서도 推進해 나갈 것이라는 展望이 可能할 것이다. 즉 中·蘇의 「統制된 對立關係」가 持續될 것이라는 展望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以外의 可能性으로서 留意해야 할 點은, 中·蘇의 武力衝突 보다는 限定된 中·蘇의 和解가 더 氣運으로서의 現實性을 떨 수 있다는 點이다.

3. 中共에 있어서의 國防建設과 外交政策의 相互聯関性

1971年 9月の 林彪失脚과 1972年 2月の 닉슨訪中과의 聯関 속에서 中共은 輕工業과 一般重工業을 보다 重視하는 經濟建設에 더 「웨이트」를 두는 經濟政策을 追求했다. 즉 國防建設 보다 經濟建設에 優先을 둔 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前述한 毛澤東戰略의 계속 推進이라는 面에서 볼 때 當然한 論理的 帰結이다. 즉 國防豫算의 冷嚴한 制約을 받는 中共으로서는 嚴格한 重点主義를 扞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選擇的인 考慮는 軍需生産의 重点項目으로서, 核兵器 및 戰略로케트의 改良, 電子技術의 向上에 의한 全軍事機構의 「엘렉트로닉스」化, 石油化學工業 및 自動車工業의 發展에 의한 機動力의 向上 등에 主力을 集中했던 것이다.

「對美接近·對蘇牽制」 外交政策이 採択되면서 中·蘇關係는 한 層 惡化했다.

그러나 國防支出이 嚴格히 制限될 수 밖에 없는 中共으로서는 林彪事件直後 새로운 對蘇戰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72年 9月の 『紅旗』 論文 『中國革命戰爭의 根本方針 — 中國革命戰爭의 戰略問題를 學習하다』가 이 戰略轉換의 基点이 되었다. 이 論文의 發表는 결국 中共이 縱深防禦戰略 (Strategy of defense-in-depth) 을 採択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美質的

으로 消極的 혹은 後退的인 이 對蘇戰略轉換에 대해서 論爭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論爭을 示唆하는 論文이 10 全大會 直前に 發表된 『紅旗』 論文 『歷史的意味를 갖는 戰略轉換 — 抗日遊擊戰爭의 戰略問題의 學習에 있어서의 若干의 體驗』이다.

이 論爭은 縱深防禦戰略을 採択하느냐 前方防禦戰略을 採択하느냐의 論爭이라고 볼 수 있다. 中共에서는 前者 즉 縱深防禦戰略을 「殲滅戰戰略」 後者 즉 前方防禦戰略을 「擊破戰戰略」이라는 用語로서 說明하고 있다. 「殲滅戰을 遂行하느냐 아니면 擊破戰을 遂行하느냐, 이 두 作戰方針의 對立은 從來부터 두가지 軍事路線이 作戰指導原則에 있어서 銳利하게 鬪爭해 왔던 根本問題이다」라고 敘述한 1973年 8月の 『紅旗』 論文 『毛主席의 10大軍事原則을 熱心히 學習하고자』를 보면, 이러한 戰略論爭이 分明히 存在했다고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論文들의 文脈으로 判斷하자면, 前者를 主張한 것은 毛澤東과 黨中央이며, 後者를 主張한 것은 行政幹部와 地方軍隊幹部라고 推定된다. 다만 이 黨中央이라고 하는 것은 文革派 즉 毛澤東의 「繼續革命路線」, 具體的으로는 「文化大革命」과 그 「新生事物」을 重視하는 左派(急進文革派)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遊擊戰主體의 縱深防禦戰略의 採択에 대해서 軍隊幹部가 反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正規野戰軍에 대신할 「遊擊軍」의 建設이 不可欠하며, 그것이 즉 現在의 「勞動者民兵」이라고 한다면, 이 勞動者民兵

의 建設에 熱을 올리고 있는 것이 急進文革派의 幹部이기 때문이다.

都市의 「勞動者民兵」의 建設이 明確히 된 것은 1973年 9月 29日字 『人民日報』에 掲載된 『解放軍報』 共同社說 및 北京市, 上海市의 民兵에 관한 記事에 의해서인데, 이들 記事로 부터 北京의 「首都勞動者民兵」의 總指揮官은 倪志福이며 「上海都市民兵」의 總指揮者는 王洪文이라는 것이 推定된다. 그런데 이 兩者는 周知하다시피 影響力있는 急進文革派 幹部인 것이다.

中共의 對蘇戰略을 圍繞한 論爭 즉 縱深防禦戰略(殲滅戰戰略)이나 前方防禦戰略(突破戰戰略)이냐의 論爭은 戰略決定後에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中共으로서는 前者를 採択하기로 決定했다. 하더라도 近代國家의 防衛戰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基本的으로 後者를 採択하는 것이 通常이며, 당연히 中共의 軍部內에도 그러한 通常的 意見이 뿌리깊게 殘存하는 것은 回避할 수 없기 때문이다.

前進하여 敵에 對処하는 「前方防禦」(farward defense) 즉 對蘇戰의 경우로 말한다면, 中·蘇國境地帶에서 蘇聯軍을 逐退하는 戰略이 中共에서는 「消極防禦」(Passive defense)로서 계속 批判을 받고 있다고 하는 事實은, 軍隊幹部와 一部行政幹部間에 이러한 「前方防禦」(「消極防禦」)를 옳다고 하는 主張이 차츰 強化되어가고 있는 趨勢를 抑止코자 하는 反映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들 幹部는 現在는 可能한 限 對蘇靜謐을 願하고 그 사이에 國防力의 充實과 國防의 近代化에 全力을 集中해야 한다고 하는

意見을 強力히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意見은, 客觀적으로 銳意 檢討해 볼 때 이미 肅清된 林彪 등 軍首腦와 空軍幹部가 主張한 意見에 차츰 接近해 가고 있다. 對蘇對決優先의 方針에는 여전히 變化가 없다. 하더라도 對蘇戰에 이르는 데 대해서는 極히 慎重하여 關心은 오히려 國防建設의 強化에 돌려져 있는 것이다. 最近에 들어와서 「聲東擊西」라는 말이 政軍幹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微妙한 變化의 出現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5)

中共은 中·蘇戰爭을 抑止하기 위해서는 極端的으로 分散配置된 MRBM/IRBM 混合戰略部隊에 의한 「最小限 核抑止力」 (Minimum Nuclear Deterrent) 6) 에 依存하는 한편, 全力을 外交政策의 展開에 依存하고 있다. 中共의 外交目標의 重點은, 蘇聯의 對中共攻襲의 決意를 促進하는 것과 같은 國際的 環境을 결코 作出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것은 이때까지의 蘇聯의 開戰決定에 대한 慎重한 性格을 充分히 考慮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이 開戰을 決意하는 基本的 條件은 ① 充分한 攻襲兵力의 集中이며 (普通 相對方側 兵力에 대해서 「攻襲兵力3倍主義」를 採択하고 있음) ② 外交的 包圍網의 形成이다.

따라서 中共으로서는 우선 極東蘇聯軍의 兵力集中이 增大하여 中·蘇國境에 있어서의 兵力均衡의 破壞를 招來하는 狀態를 作出하지 않도록 하는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럽·러시아에 있는 蘇聯軍의 大規模的인 極東移送을 阻止하

하기 위해서 歐洲의 緊張狀態를 持續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中共이 「緊張緩和」(detente)에 異議를 提起하고 蘇聯主導의 「全歐安保·協力會議(CESCO)를 批判하고, 「聲東擊西」(東을 친다고 假裝하고는 西를 때린다)를 宣傳하는 것은 이러한 意圖에서 나온 것이다. 同時에 蘇聯-西歐의 和解(rapprochement)를 牽制 혹은 沮止하기 위해서 中共·스스로도 行動하여 프랑스 등 西歐各國 혹은 EC에 接近하는 政策을 採択하고 있다. 이 接近 政策은 內容的으로는 通商貿易關係의 改善이 主이지만 1975년 4月 프랑스를 訪問한 中共代表團(團長 鄧小平)이 「霸權主義」 反대에 관해서 프랑스로부터 同意를 얻어 내고자 한 것으로도 그 真意를 把握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알타의 密約」과 같은 美·蘇間의 對中共密約을 沮止하는 것은 勿論, 美國의 核抑止力(특히 유럽駐屯美軍의 戰略 및 戰術核兵力에 注目)에 의한 對蘇牽制를 獲得키 위해 닉슨訪中後에도 對美接近의 政策을 持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이 蘇聯의 外交包圍網形成을 沮止함에 있어서 가장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은 「才3世界」에 대한 政策이다. 특히 蘇聯의 勢力侵透에 의하여 直接 目國에 威脅을 받는 東南아시아諸國 印度洋沿岸諸國에 대해서는, 中共은 蘇聯과 對抗하여 모든 方法을 動員하여 影響力の 擴大를 企圖하고 있다.

이에 대해, 蘇聯은 SALT 등 美·蘇대당트의 推進, 全歐安保·協力會議의 開催를 보고 난 後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安全保障의 確

保提唱 등에 의하여 応酬하는 한편, 強力한 艦隊를 太平洋, 印度洋, 東·南兩友邦海에 派遣하여 影響力의 擴大를 企圖하고 있다.

요컨대 國際情勢는 中·蘇間의 「外交戰」의 狀況에 의하여, 一層 複雜化하고 있으며, 「日·中共平和友好條約」締結交渉이 「霸權條項」의 問題로 停滯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文脈에서 容易하게 理解될 수 있는 것이다.

1971年 9月の 「林彪事件」 直後 採択된, 國防建設을 抑制하고 經濟建設에 偏重하는 政策 즉 輕工業과 一般重工業의 建設을 重視하는 政策의 結果, 一般重工業 특히 鉄鋼工業과 聯関이 있는 陸軍 裝備의 火砲 및 戰車 등의 生産에는 若干의 向上이 보이지만 戰略로켓, 防空戰鬪機 등의 近代兵器의 開發과 生産은 2年後의 1973年에 가서는 顯著하게 低下했다. 8)

이리하여 1974년에는 全般的인 政策의 調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政策의 轉換過程에 들어간 것이다. 그 契機를 形成한 것이 1974年の 生産活動의 極度の 混亂과 이에 隨伴된 鉦工業生産의 不振이었다고 推定된다. 즉 1974年の 2月부터 시작된 「批林批孔運動」으로 大規模的인 生産의 混亂과 不振이 出現했던 것이다.

中共中央이 軍隊 및 行政機關의 黨委員會 앞으로 發送한 『中發(1974) 21号』 文件에 의하면, 中共의 基幹에 네르기인 石炭生産은 이 해 1月부터 4월에 걸쳐서 835萬屯이 減少되었으며, 또한 津浦, 京広, 京包, 貴昆의 4大幹線을 中心으로 鐵道輸送이 中止되어

이 2大原因과 各工場 자신의 原因에 의하여 全國의 重工業 및 國防工業의 生産은 顯著히 減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國防工業生産은 從來 比較的 順調로왔던 陸軍裝備의 通常兵器生産마저도 低下시킬 수 밖에 없게 되어 國防建設은 더욱 遲滯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軍部는, 空軍은 물론 陸軍을 包含하여 「批林批孔運動」이 이 以上 擴大하는 것을 反對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리하여 이 運動은 7월에 들어 가서는 收拾되기 시작했다.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中共中央은 『安定團結에 관한 指示』(『中發(1974 26号』文件)를 發送하여 毛澤東의 談話(「文化大革命已經八年, 現在 以安定爲好. 全党全軍要團結」)를 傳達했다. 이 사이에 毛澤東은 武漢 東湖에서 高級軍幹部會議를 開催하여 事態收拾에 臨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收拾過程에 있어서 軍部の 不滿을 緩和시키기 위하여 軍部가 오랫동안 要求해 온 國防力の 充實과 國防近代化중 몇가지 計劃이 承認을 보게 된 것이라고 推定된다.

이리하여 1975年 元旦의 3大紙誌共同社說은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많이, 빨리, 훌륭하게 發展시켜」, 「國防工業을 眞摯하고도 堅實하게 推進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叙述하여, 1970年의 9期2中全会以來 오랫동안 國防力の 充實에 관한 言及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 1月中旬에 開催된 4期全人代에 있어서의 周恩來의 『政府活動報告』는, 「今世紀內에,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 近代

化는 全面的으로 實現하여 우리나라의 國民經濟를 世界의 前列에 「세운다」⁹⁾고 陳述하여, 今後의 10년이 이 構想을 實現하는 열쇠이며, 이 사이에 工業體系와 國民經濟體系를 樹立하여 이 構想의 雄大한 目標의 實現을 旨向하는 基礎로 삼아야 한다고 明確히 指摘하고 있다. 이와 같은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同時並進政策 즉 國防工業과 一般重工業을 함께 重視하는 政策은 從來의 國防建設을 抑制하고 經濟建設에 編重하는 政策에 대한 一種의 軌道修正이라고 말할 수 있다.

國防建設을 重視하는 長期目標의 設定에 隨伴하여 4期全人代에서는 具體적인 措置가 취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注目할만한 것은, 새로운 國務院機構 중에 國防工業管掌의 部局이 整備되기에 이르렀다는 事實이다. 從來부터 國防工業을 主管하고 있다고 確認 혹은 推定되고 있는 才2~才7 機械工業部는, 文革中에서 林彪事件까지 「軍事管制」의 執行에 의한 中央軍事委員會로 부터의 干涉에 의하여, 또한 林彪事件以後는 政策變更에 의한 이들 業務에 대한 輕視에 의하여 國務院의 組織機構로서 存在하는 것마저 確認될 수 없는 狀態였었다.

그것이 4期全人代에 있어서는 國務院의 各部로서 公表되고 또 새로운 部長이 任命되므로써 明確히 國務院內에 國防工業에 관한 計劃立案 및 管理運營의 業務를 執行하는 機構가 存在하게 되었다는 것이 明示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同時에 그것은, 國務院에 있어서의 全般的인 經濟政策과의 調整

에 따라, 今後 国防工業이 커다란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表示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各部의 部長에는 老練한 行政幹部가 起用된 外에, 3 名의 明確한 軍隊幹部 즉 李際泰(前北京軍區 空軍司令員), 李成芳(前昆明軍區 才2 政治委員), 汪洋(前瀋陽軍區副司令員)이 各々, 才3, 才5, 才7의 各機械工業部長으로 起用되었다. 10)

하지만 특히 注目할만한 것은, 陳錫聯(政治局委員, 北京軍區司令員)이 國務院 副總理로 任命되어, 이들 國防關係 各部 즉 才2~才7 機械工業部 및 國防부에 대한 統轄調整 또한 軍部(中央軍事委員會와 地方軍區)와 國務院間의 關係調整의 役割을 担当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그리고 陳錫聯은 또한 失脚直前까지 外交政策의 實務執行의 最高 責任者였던 鄧小平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는 것도 重要하다. 陳錫聯은 國共內戰時節, 才2 野戰軍(司令員 劉伯承, 政治委員 鄧小平)의 有力한 指揮官(才2 野戰軍 才3 兵團司令員)이며, 鄧小平하고는 歷史的인 人脈關係로서 結合되어 있다.

따라서 鄧小平·陳錫聯은 中共의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調整하고 또한 外交政策과 軍事戰略을 調整하는 말하자면 中共의 政戰兩略의 統合調整의 最高實務를 執行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 큰 뿌리인 鄧小平이 失脚하고 말았다. 하지만 上述한 人脈關係로 보아, 鄧失脚의 餘波가 이 人脈全體에 미칠 수 있는 對内外의 狀況이 아니고 보면 毛死後 指導體制의 再編成類型에서 優先順

位 才 2 位로 鄧小平流의 右傾的 折衷主義가 設定되는 論理的 根拠를 窺見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클現象의 端的인 表現이 立証하드시, 毛澤東의 意志가 담겨진 行態의 一表現으로서의 鄧失脚이라고 한다면, 過去의 復權이 立証하는 것처럼, 左傾的 趨勢 다음에는 右傾的 趨勢가 뒤따른 것으로 보아, 毛死後의 指導體制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優先順位 才 2 位인 右傾的 折衷主義가 優先順位 1로 登場할 可能性을 多分히 內包하고 있다고 看做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이러한 사이클現象의 意味는, 中共內政이 中共版 天下大亂으로 誘導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中共內政의 騷亂을 틈 타, 蘇聯의 限定된 先制攻擊이 加해지지 않으리라는 事態進展을 根源的으로 說明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蘇聯의 對中共先制攻擊의 可能性 豫測은, 中共自體內的 要因分析과 美國이 介在된 對外關係를 考慮해 볼 때 客觀性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右傾的 折衷主義의 勢力 즉 鄧·陳을 頂上으로 한 勢力의 一般的인 特徵은 彭德懷의 「軍의 近代化·正規化路線」의 흐름을 받아, 近代的인 國防軍의 建設에 대해서 強烈한 熱意를 갖고 있다는데 있다.

中央軍事機構 및 國務院의 國防工業担当部門을 이들 勢力이 漸次 차지해 가고 있는데, 地方의 軍區는 이미 完全히 이 勢力의 掌握 下에 있다.

즉 中共의 11大軍區司令員 중에서 5名의 軍區司令員 陳錫聯,

李德生, 許世友, 皮定均 (76.7 死亡), 秦基偉는 才 129 師 - 2 野系軍隊幹部이며, 나머지 6 名の 軍區司令員 曾恩玉, 丁盛, 楊得志, 王必成, 韓先楚, 楊勇은 志願軍系 軍隊幹部이다. 11)

이러한 中央, 地方을 망라한 堅固한 軍事勢力的 形成은, 党中央에 勢力을 伸張하고 있는 「文革派」에게는 커다란 威脅으로 浮刻되고 있으며 이미 前述한 戰略論爭은 이러한 情勢를 背景으로 하여 한 層 激化하였던 것이다. 前方防禦戰略下에 兵力의 集中과 戰備의 充實을 첫째가는 課題로 삼아 自己軍區의 指揮下에 駐屯하는 野戰軍部隊를 可能한 限 移動시키지 않고 兵力을 極力 溫存하여, 政治的 影響力的 維持에 努力하는 것은, 이들 軍區司令員에게 있어서는 利益인 것이다.

反面, 縱深防禦戰略下에서 兵力의 檢動的 運用을 主張하여 野戰部隊의 頻繁한 移動을 實施, 이와 함께 遊擊戰主体의 戰術下에서 「都市民兵」을 養成하여, 同民兵의 中核인 青年勞動者를 통하여 이 民兵을 確실히 kontrol하여 政治的 影響力的 擴大를 企圖하는 것은 文革派의 利益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國防建設을 圍繞한 論爭에는 戰略的 意味가 存在함과 아울러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中共의 外交政策과 깊이 相互關聯되어 있으므로, 이 論爭의 歸趨는 곧 對外關係의 變化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뭏든 國防建設에 重點을 移行시키는 政策이 採択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效果는 겨우 2 年後인 1977 年에 가서야 나타날 것으로 그 때까지 中共軍의 裝備改善 및 戰略兵器의 展開가

계속 遲滯할 것은 不可避하며, 中共軍은 여전히 近代的 軍事力에 있어서 劣勢를 免치 못할 것이다.

中共이 이러한 狀態로 부터 急速히 脱皮하고자 한다면, 現在の 「自力更生」原則下의 國防建設은 차츰 限界에 達하고 있어, 技術的인 困難, 특히 電子機器의 應用面에 있어서의 遲滯를 回復하기 위해서는 對外交流의 急激한 擴大 밖에는 길이 없다. 이것은 將來 蘇聯과의 和解나 아니면 西方側에 對한 接近의 強化나 하는 兩者 拮一의 選擇을 意味하고 있다. 그 어느 경우든 中共의 國內體制의 緩和를 隨伴할 것인데, 이러한 次元에서 「右傾的 折衷主義의 再抬頭」가 豫見될 수 있을 것이다.

蘇修社會帝國主義, 霸權主義를 激烈히 批判하면서도 中·蘇國境交涉이 계속되고 있고, 또 「中·蘇友好相互援助同盟條約」도 여전히 廢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同條約締結時의 當事者였던 伍修權(當時 外交部蘇聯東歐司長)이 1975年 5월에 副總參謀長으로 就任한 事實은 注目할만한 現象이다. 코민테른代表 「리트로프」가 指導한 「短促突擊戰術」¹²⁾, 林彪가 指導한 「一點兩面」¹³⁾, 「四快一慢」¹⁴⁾ 戰術에 對한 批判이 行해지는 가운데, 리트로프의 通譯員을 지냈고 林彪의 參謀(東北民主連軍-才1野戰軍 副參謀長)을 歷任한 伍修權에 對한 이 人事는 上述한 戰略論爭에 對한 軍指導部의 何가지 立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戰略論爭의 行方이 中共의 對外政策에 깊이 關聯되어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次元에서 본다면, 中共이 現狀況의 軍事技術的 困難을 美國의 援助에 의하여 補充하여 戰略的 態勢를 有利하게 한 後 蘇聯과의 交渉을 推進하여 限定된 和解에로 達할 수 있다는 選擇도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蘇聯에 대한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 造成努力 以外에 中共은 美國을 비롯한 西歐諸國家 및 日本에 대한 接近外交를 現狀에 있어서 계속 持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豫測可能性과 事實들은 中共이 將來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選擇의 餘地를 여전히 남겨 놓고자 하는 考慮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 라고 看做할 수 있다.

4. 蘇聯共産党 第25次

大會에서의 對中共政策

才25次大會에서 브레즈네프는 中共의 毛澤東主義者의 이데올로기와 政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學說과 一致하지 않는다는 主張程度로는 不充分하며, 그것은 分明히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學說에 敵對하고 있다고 叙述하므로써 毛主義와의 原則的 非妥協的 鬭爭을 推進해 나갈 決意를 表明, 對中共批判을 한 걸음 進展시켰다.

才24次大會에 있어서는 中共指導者의 特殊한 이데올로기의·政治的 政綱은 「레닌主義에 合致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指摘되었다.¹⁵⁾ 同時에 브레즈네프는 中共과의 關係를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하여 正常化할 用意가 있음을 明白히 하고, 對中共關係를 社會主義國家間의 關係로서가 아니라, 社會制度가 相異한 國家間의 關係로서 處理할 方針을 明確히 했다.

이 브레즈네프報告를 基調로 하여 大會의 많은 代議員이 對中共 政策을 論했는데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부랴아트 등 中共에 가까운 地方의 代議員이, 中共의 領土政策, 少數民族政策을 날카롭게 批判했다. 예컨대, 부랴아트州黨委의 모도고에프 才1書記는 北京의 指導者들은 바이칼以東의 蘇聯領을 奪取코자 하는 意圖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非難하여, 北京의 쇼오비니스트들은 소비에트 極東을 奪取코자 했던 日本軍國主義者들이 廢滅했다고 하는 歷史의 教訓을 想起하라고 警告했다.¹⁶⁾

또한 키르기스의 우수발리에프 才1書記는 1976年 2月初 蘇聯軍部隊가 「토르갈트」재를 넘어 中共領에 侵入하여, 新疆地域의 中·蘇國境에서 武力衝突이 일어나서 死傷者가 생겼다는 風說을 否定함과 아울러 위이글人, 까자흐人, 둔강人, 키르기스人, 우즈베크人 등 5,000万名을 넘는 中共의 少数民族에 대한 政策을 非難했다. 17)

까자흐스탄의 쿠나에프 才1書記도 中共의 新疆에 居住하는 까자흐人, 위이글人, 키르기스人, 둔강人 등에 대한 政策을 批判하고, 이들 少数民族이 完全히 無權利狀態에 있다고 指摘했다. 18)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中共人民에 期待를 거는 論議도 있었다. 바시키이즈州黨委의 샤키로프 才1書記는 中共의 共產主義者들, 中共人民이 毛澤東主義를 버리고,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입각하여 蘇聯 및 其他 社會主義諸國과의 友好·協力の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힘을 발전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주장을 서술했다. 19)

노보시비르스크州黨委의 고라체프 才1書記는 中共의 指導者들은 많은 시베리아인도 包含하여 수 많은 兵士와 指揮官이, 中共人民을 日本軍閥主義者로 부터 解放하기 위하여 生命을 버렸을 때의 일을, 또한 蘇聯人民이 中共에 施設을 보내고 工場을 세웠을 때의 일을 忘却했느냐고 自問하면서 平和共存政策을 基礎로 中共人民과의 友好를 指向하는 黨中央委의 政策을 支持했다. 20)

才25次黨大會에서 提起된 對中共政策은, 才24次黨大會時 보다도 강경했다.

才 24次党大会는, 蘇聯의 党과 国家의 政策에 대한 中共宣傳의 中傷的인 捏造를 断乎히 拒否함과 아울러 中·蘇關係의 正常化와 中·蘇兩國國民의 善隣·友好의 回復에 努力할 것을 決定²¹⁾ 했으며 또한 中·蘇關係를 社會主義國家間의 關係로서 改善코자 했다.

그러나 그後, 中·蘇關係가 一層 惡化함에 따라 1972年 3月에 브레즈네프는 中共이 만일 蘇聯과의 關係를 平和共存의 原則에 입각한 關係以上으로 進展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応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分明히 했다. ²²⁾

才 25次党大会는 이것을 党的 公式方針으로 確認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毛澤東主義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敵으로서 位置지워졌으며, 中共에 대해서 社會制度가 相異한 國家間의 準則인 平和共存의 原則이 適用케 되었다.

蘇聯은 이미 中共의 社會主義社會로서의 性格에도 疑問을 갖고 있다. 蘇聯은 1973年 8月의 10全大會後, 毛澤東과 毛를 둘러싸고 있는 者들의 權力の 獨裁的, 軍事·官僚的 性格이 계속 強化하고 있으며²³⁾ 이 軍事·官僚獨裁라고 하는 權力の 性格에 의하여 中共의 經濟와 社會構造 內에 있는 社會主義的 要素가, 本質的으로는 無로 돌아가고 있다. ²⁴⁾ 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생각은 1975年 1月의 中共新憲法의 採択後 一層 강화되었다.

이 憲法에 의하여 文化大革命의 結果, 中共에서 形成된 國家機構의 構造가 法的으로 確立하여 이제 단지 中共의 社會主義的 發展

이 變形했다든가, 中共政權樹立後 最初의 10年間に 形成된 社會主義의 基礎가 侵蝕되었다든가 하는 主張이 아니라, 軍事·官僚그룹의 獨裁體制가 法的으로 確立했다고 評價했다. 이리하여, 이 毛澤東의 軍事·官僚그룹의 政策의 進展이 中共을 점점 더 社會主義로 부터 逸脫케 하여, 쇼오비니즘과 冒險과 野心에 찬 大國主義的 陰謀의 길로 引導케 될 것이라고 豫測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아직도 公式으로 中共을 社會主義社會가 아니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公式으로는 中共人民에 대해서 社會主義的 獲得物의 옹호와 發展의 事業에서 成果를 올리도록 希望하고²⁶⁾ 兩國關係의 正常化와 兩國의 友好·協力의 回復을 期待하고 있다.²⁷⁾

上述한 바와 같이 中·蘇關係는 기왕의 友好·同盟關係로 부터 敵對·抗爭關係로 바뀌었다. 蘇聯은 毛澤東主義를 敵으로 보고 中共을 이미 社會主義圈에 넣고 있지 않다.

中共의 現體制下에서는 和解는 不可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國家에 대해서는 平和共存의 原則에 입각한 關係正常化를 希求하면서 人民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입각한 友好의 回復을 希望하고 있다.

蘇聯은 中共의 指導者와 人民을 區別하고 人民에 期待를 걸고 있다.

그리고 最終的으로는 中共人民이 社會主義諸國의 人民과 같은 하나의 體制 속에 位置할 길을 發見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²⁸⁾ 결코 그 前途를 樂觀하고는 있지 않다.

蘇聯의 對中共政策은 受動的이며, 中·蘇關係의 動向은 中共의 態度에 크게 달려 있다고 看做될 수 있다.

5. 北京政變後의 中·蘇關係現況

가. 蘇 聯

① 1976年 10月 25日, 蘇聯共產党中央委員會總회가 10月 27日부터 開催될 蘇聯邦最高會議에 앞서 開催되었으며, 同會議에서 브레즈네프 書記長은, 「蘇聯과 中共간에는 善隣의 精神에 立脚해서 解決되지 않을 어려운 問題는 없다」고 演說했다.

② 1976年 11月 10日, 蘇聯 『타스通信』은 中共은 「蘇聯의 中國國慶節祝賀電文(9.30)에 대해 全人代常務委와 國務院 共同名義로 答電을 보내 왔다」고 報道했다.

나. 中 共

① 1976年 10月 28日, 『로이터』通信은 北京을로 다음과 같이 報道했다.

「中共은 華國鋒의 黨主席任命을 祝賀하는 蘇聯, 東獨,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蒙古의 電文을 “中共黨은 이들 諸國黨과 關係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理由로 接受하기를 拒否했다.」

② 中共은 1976年 11月 5日, 駐中共 蘇聯大使館에서 開催된 蘇聯 10月革命 59周年記念宴會에 余湛外交部 副部長을 參席시키고 11月 6日, 北京TV를 통해서 레닌과 스탈린이 登場하는 10月

革命에 관한 記錄映画를 放映했다고 日本의 『日經新聞』이 11月 7日에 報道했다.

③ 1976年 11月 3日, 北京發 『時事通信』의 報道에 의하면 李先念副總理는, 프랑스 言論代表團과의 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蘇聯이 中共에 攻擧를 加해 올 경우, 中共은 防禦戰을 遂行할 것이며,

㉡ 蘇聯의 政策이 흐루시초프 以前으로 轉換되지 않는 限, 中·蘇關係 改善은 가까운 將來에 達成되지 않을 것이고,

㉢ 蘇聯은 制限主權論을 主張하면서 他國을 蘇聯依存型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中·蘇關係는 改善될 수 없으며, 蘇聯이 姿勢를 바꾸지 않는 限, 中共態度도 變하지 않을 것이다.

④ 1976年 11月 11日, 『新華社通信』은 論說을 통해 蘇聯共産黨 書記長 브레즈네프의 이름을 直接 指稱하여 「現代版 러시아 皇帝」라고 非難하면서 「蘇聯의 처아프리카 友好論은 武力에 의한 아프리카占領음모의 은폐手段이며 앙골라事態가 그 証拠」라고 攻擧했다.

6. 中·蘇關係의 向方에 대한 妥當性 檢討

가. 想定可能한 假定들의 明暗

毛死後, 華國鋒新體制가 登場한 이 時點에서, 中·蘇關係의 向方을 어떤 假定에서 觀察해야 하는가 이 問題가 一次的으로 提起되어야 할 것이다.

中·蘇關係는 단지 兩國間의 關係를 떠나서, 美國이라는 才 3 國이 지속히 介在되어 있기 때문에, 의당 美·蘇·中共의 3 極構造에서 分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中·蘇關係는 50年代 前半期의 蜜月時代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그렇다 하여 69年 봄의 우쭈리衝突事件 때와 같은 戰爭 一步前의 事態가 아닌, 最少限度 國家 對 國家의 關係라는 立場에서 慢性的 現狀持續이 豫見된다고 看做하는 專門家들이 많다. 그리고 또한, 經濟交流程度의 國家關係改善은 充分히 展望될 수 있다는 意見들도 많다.

파이教授 등이 現狀維持的인 慢性的 持續論 즉 「統制된 対立」의 持續論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對해 예컨대 화이팅教授 등은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的인 展望과는 對照的으로, 브제진스키教授는 「中·蘇關係는 앞으로 더 惡化되어 過去의 美·中共關係처럼 恒常 戰爭의 씨앗을 胎할 것」이라는 憂慮를 表明하고 있다.

그러면 上述한 代表的인 專門家 3名의 主張을 하나의 假定類型으로 삼아 「틀」에 맞추어서 想定可能한 假定들의 明暗度を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

(가) 알렌 S. 화이팅

中·蘇緊張에 관한 限, 美国과의 対決을 回避코자 하는 中共의 決定은, 적어도 蘇聯과 아시아의 美軍基地에서 同時に 敢行될 2個戰線의 戰爭威脅을 除去시키므로써 中·聯国境의 壓力에 어떤 相殺를 提供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決定은 美国과의 協商에 있어서의 蘇聯의 独占的 位置를 拒否한다. 이와 같이, 過去 10年以上 破壞적이고 革命的인 活動水準에서 전적으로 營爲되었던 中·蘇의 競争은 다시 50年代中葉에서 特徵化되었던 國家關係의 競争의 次元으로 「감·백」하는 것이다. 29)

(나) 모탄 H. 헬페린

中共의 새로운 姿勢가 中·蘇關係에 있어서의 어떤 實質的인 關係改善으로 引導될 것이라는 論議에 대해서는 疑問의 餘地가 있으나, 通商交易關係를 包含한 外交的 授受에서의 若干의 改善과 아울러 이데올로기論爭의 緩和는 어느程度 期待될 수 있을 것이다. 北京当局의 見地에서 볼 때 中共에 대한 蘇聯軍事力の 움직임의 展望은 十中 八九 減縮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重要하다. 30)

(나) 제임스 C. 톰슨 2世

美国과 中共兩國이 1971年의 解氷을 가져 오게 한 主要 刺戟은 이 兩國의 對蘇關係였다. 20年間の 美·中共 敵對關係는 蘇聯에게 큰 惠沢을 베풀어 주었다. 蘇聯指導者들은 3角形의 才3面에 對한 結果를 計算할 必要 없이, 美·中共兩國에 對하여 그들이 選擇할 수 있는 대로·제멋대로 行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惠沢은 이제 終末을 告했다. 그 結果 1960年代와 對반을 통하여 美國의 蘇聯專門家들이 豫言했던 것 보다는 美·蘇關係를 阻害하지 않았다.

中共과 美國의 이니셔티브는, 確實히 蘇聯으로 볼 때 尤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美國과 中共이 銘心해야 할 일 즉 蘇聯의 對外政策에 對하여 새로운 拘束을 附加해야 한다는 事實은 長期的인 歸結로 보아 正確한 것이었다. 이러한 拘束은 蘇聯으로 하여금 中共 그리고 中共의 競争國인 美國, 日本 심지어는 台灣하고도 和解를 促進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結果는 中·蘇間의 따뜻한 關係改善은 아닐 것이다. 이데올로기面이나 國家關係에 있어서, 東아시아의 새로운 4極體制에 이러한 結果를 許容하기에는 너무나도 論爭거리가 많은 것이다. 31)

(라) A. M. 헬펀

蘇聯에 對하여 앞으로 中共이 취할 姿勢의 意圖는 兩國間에 있어서의 即刻的인 争点과 長期的인 間接的 競争의 兩側面에서 測定되어야 한다.

短期的으로 볼 때 中·蘇戰爭의 可能性은 退潮하고 있는 것 같다. 兩側은 戰爭準備를 하고는 있으나, 아무도 戰爭을 敢行할 意圖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美國은, 中·蘇戰爭을 강력히 回避해야 할 終末로 看做하고 있다. 심지어 試驗的인 美·中共和해도 戰爭을 決行치 않고 戰爭없이 中·蘇問題解決을 比較的 有利하게 獲得코자 하는 中共의 努力을 強化할 功算이 클 것이다. ³²⁾

(마) 데이비드 모진고

蘇聯은 美·中共間의 緊張緩和를 分明히 豫想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美國과 中共은 자기네들이 아시아에서 浪費스럽고 結論이 나치 않는 鬪爭에 휘말려 있는 사이에 蘇聯이 크게 惠沢을 보고 있다는 事實을 早晚間 發見케 되기 때문이다.

戰略的으로 蘇聯은 美·中共解氷이 誇張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必要가 없었다. 美國은 中共을 包含한 어떤 未來의 시나리오를 위해 日本과의 關係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類似하게 中共이 蘇聯의 攻擧를 받을 경우 中共을 防衛키 위하여 美國이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美·中共解氷으로 말미암아 印度, 日本, 韓國, 越南이 속크를 받은 程度로 蘇聯도 中共에 대해 苦痛을 줄 立場에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東歐諸국이 蘇聯에서 獨立코자 하는 努力을 中共이 부채질 할 能力은 限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68년의 체코슬

로바키아 侵攻以後로는 東歐諸國이나 中共에 대해 똑같이 危險하고 非生産的인 것이다.

蘇聯이 美國과 같이 여전히 毛澤東死後의 中共과 關係를 改善코자 希望하고 있다는 考察은 中·蘇紛爭에 언제나 限界를 設定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이 美·中共의 求婚을 달가와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여 蘇聯이 새로운 緊張을 사주한다는 結論은 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워싱턴當局에 대한 毛澤東의 提案은 中共指導層内部 一黨 및 軍高位層의 深刻한 分裂을 무릅쓰고 行해졌을 것이다. 만일 美國이 毛澤東을 拒絶하여 美·中共關係가 다시 冷却해 진다면 蘇聯이 비집고 끼어들어, 毛澤東의 後繼者들에게 손을 내밀 準備를 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 33)

(바) 로버트 A. 스칼라피노

中共의 蘇聯과의 限定的 和解는 日本에 대한 漸高하는 葛藤과 결부될 것이다. 34)

(사) 도널드 S. 자고리아

中·蘇兩國의 正常化는 그 時點에 있어서의 美·中共關係에 依存할 것이다. 35)

(아) 프란츠 마이클

中共指導者들의 態度에서 觀察할 수 있는 가장 큰 變化는 蘇聯의 對中共攻擧에 對한 恐怖가 사라졌다는 點이다. 1969年以後 蘇聯은 中共의 特徵이 되어 왔고 實지 中共全域을 통해 「같이 抗道를 파라」는 毛澤東의 구호에 따라 對空襲用待避壕를 무모하게 파게끔 했던, 蘇聯에 對備한 人民戰爭準備는 없어져 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蘇聯의 修正主義에 對한 中共의 非難이 緩和되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中共의 새로운 態度의 例는 1973年 8月 24日, 10全大會에서의 周恩來總理의 政治報告에서 看破될 수 있다. 이 報告에서 周恩來는 「蘇聯修正主義 反黨徒黨의 괴수」 브레즈네프를 偉大한 文化革命의 敵이라고 攻擧 했다. 그러나 同報告에서 周恩來는 蘇聯의 진짜 攻擧은 中共이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中共官僚들은 蘇聯을 中共의 威脅으로 看做하지 않고 있으며, 反蘇的 見解를 갖지 않고 있다. ³⁶⁾

(자) 다구보·다다에

中·蘇의 和解는 어떤 경우에 可能할까? 中共이 美國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斷定했을 때이다. 中共은 對蘇戰略上 美國을 利用하고자 했으며 現在 利用하고 있다. 蘇聯과 對決하고 있는 中共으로서는, 美國이 蘇聯에 對해 데탕트政策을 展開하는 것

은 대단히 不愉快하다. 美·蘇가 結託하는 것과 같은 事態가
나기 前에 中共은 蘇聯에 기울어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37)

(차) 다구보·다다에

中·蘇의 和解는 어떤 경우에 可能할까? 中·蘇兩國의 軍事
事解決이 極度로 에스칼레이트되면, 兩國間에 大規模的인 戰爭回避의
氣運이 自然히 醸成하는 事態가 생기면 可能하다. 38)

(카) 가와시마·히로조

中共內에 蘇聯志向의 潛在勢力이 뿌리 깊이 存在하고 있
다. 39)

(2) 統制된 対立의 持續

(가) C.P. 피츠제랄드

中共側의 환심을 살 수 있을 變化들은, 蘇聯의 政治構造나
社會態度에서는 엿볼 수 없으며, 反面 中共도 文化革命 以前의
매너로 復歸할 可能性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共產世界는 마르크
스·레닌主義의 眞理判定權是非에 있어, 競争的 分裂狀態에 있다.
마치 東·西카톨릭教會의 分裂과 같이 中·蘇紛爭은 無限히 繼續될
것이나, 그렇다 하여 어느側도 決定的 勝利를 收獲할 수 없는 이
데올로기戰爭으로 歸結하는 事態를 願치 않고 있다. 40)

(나) 위르겐 도메스

中共의 새로운 外交的 움직임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으로 歸結된다면, 그리고 적어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에 대해 無言의 道德的 政治的 支持로 歸結된다면, 蘇聯의 對中共介入의 可能性에 對한 中共執權者들의 恐怖는 減少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中·蘇紛爭解決의 chances가 增大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反대로 蘇聯은 中共의 增大된 威脅을 憂慮하여, 中·蘇國境警備에 힘을 傾注할 것이며, 東南亞에서 自己 立場을 強化코자 할 것이다.

蘇·印條約의 論理的 結果로서 蘇聯은 東南亞諸國과의 經濟交流를 伸張코자 할 것이며, 심지어 美國의 軍事的 駐屯의 減少를 促타, 이 地域에 있어서 魯즈한 安保公約을 맺을 準備를 갖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蘇聯의 움직임은 적어도 蘇聯執權者들이 毛澤東死後, 中共指導層과의 公平한 解決에 到達할 希望을 갖고 있는 限 台灣의 自由中國을 이 安保公約에 包含시키지 않을 것이다. 41)

(다) 야노·도루

中·蘇의 和解는 當分間 있을것 같지 않다. 또한 同時에 蘇聯은 中共에 對해서 全滅政策도 취할 수 없을 것이며, 항상 上限과 下限을 가진 國家對立의 關係가 中·蘇間에 계속될 것이다. 42)

(라) 히라마쯔·시게오

共産主義政權 및 그 政策決定過程을 우리가 正確히 分析할 수 없기 때문에 中·蘇關係의 將來에 대해서 여러 가지 臆測을 할 수 있다. 劉少奇와 林彪의 肅清背後에 어떠한 形態로든 對蘇協調의 問題가 얽혀 있었던 것과 같이, 毛澤東의 在任中에 있어서도 中·蘇間에 協調의 可能性이 現美로 存在했기 때문에 毛死後 그 後繼者들에 의하여 蘇聯을 主敵으로 하는 方針이 變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試圖가 다시 提起되어 成功할지의 與否는, 外部로 부터의 威脅如何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和解하려면 값 비싼 代價가 必要하기 때문에, 外部로 부터의 重大한 威脅에 直面하지 않는 限, 兩國 모두 그러한 代價를 支払할 必要를 認定하지 않을 것이다. 劉少奇든 林彪든 對蘇關係의 改善은 本心에서가 아니라 戰術적인 것에 不過했다. 蘇聯이 中共의 現政權을 打倒하여 이에 代替할 親蘇政權을 樹立하지 않는 限, 中·蘇和解는 中共側으로 보면 本心에서가 아니라 戰術적인 것에 不過하며, 蘇聯側의 大幅적인 讓步를 必要로 한다. 蘇聯이 中共에서 「프라하의 쿠데타」를 演出하기란 극히 어려우며, 또 가령 成功했다 하더라도 中共人民의 支持를 獲得하기란 困難한 일이며, 공연히 反蘇感情을 부채질 할 뿐이다.

中共이 現在 友好國을 增加하기를 願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으나 그 相처는 蘇聯을 除外한 나라들이며, 蘇聯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蘇聯이 相처가 아니다. 中共은 現在의 西方側과의 慎重한 協

調路線을 維持하면서 可能한 限 빨리 国力을 蓄積하는데에 最善의 利益을 發見하고 있다. 中共과 蘇聯間에는 戰爭도 和解도 아닌 狀態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43)

(마) P.R. 차리

中·蘇兩國間의 이데올로기의 分裂과 共産圈內에 있어서의 優位競争은 보다 密接한 友好를 排除할 것이다. 44)

(바) 루시안 W. 파이

毛死後 中·蘇紛爭의 強度는 아마도 減退될 것이나, 그래도 中共은 蘇聯과의 길다란 國境을 계속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中共은 또한 西歐와 日本에서 高度의 技術을 輸入하고자 할 것이다. 世界에서 가장 큰 나라가 原始的인 自力更生으로 되 돌아 갈 수는 없다. 上述한 것으로 보아, 中共에서는 美國과의 關係를 계속 改善코자 하는 壓力이 存在할 것이라는 점이 示唆되고 있다. 45)

(3) 緊張高調

(가) 로버트 W. 바이네트

요컨대, 國際社會에서의 容認을 志向하는 中共의 前進은 本質적으로 蘇聯을 놀라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蘇聯戰略을 混亂케 하고 複雜하게 할 수 있다. 蘇聯은 自由中國政府 대신 中華人民共和國를 유·엔에 加入시키코자 하는 알바니아 決議案을 확

실히 支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中共이 美國과 日本, 美國이나 日本하고 軍事的 性格의 理解와 協定을 志向하여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것은 그 具體化의 度가 어느정도 實際性을 띠는지에 관해서는 關係없이, 中·蘇의 緊張을 銳角化시킬 것이며, 심지어는 豫防戰爭의 리스크도 不辭할 姿勢를 取하게 할 것이다. 46)

(나) 리차드 L. 워커

文化革命時期의 怒号하는 內觀的 巨人보다 유엔安全保障理事會의 議席을 차지한 現在의 中共이, 世界共產主義 리더십을 主張하는 蘇聯에 대해서는 보다 더 深刻한 挑戰일 수 있다. 周恩來의 微笑가 中共의 姿勢를 代辯하고 있는 동안에는 中華人民共和國의 主要指導者들이 革命才一代 즉 獻身的인 共產主義信奉者라는 사실을 쉽게 忘却한다 (네루는 유감스럽게도 이 事實을 忘却했다). 그러나 事實上 이데올로기적인 信念이 中共의 對蘇關係 — 이 關係의 코오스가 競爭的, 敵對的 혹은 和解的 性格의 그 어느 것을 갖고 있든간에 — 에 明暗度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周恩來를 包含한 中共指導者들이 西方側과 蘇聯의 衛星國들인 東歐에 대한 자기네의 새로운 柔軟性을 「바야게이닝·파워」로 看做하고 있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한다.

中共은 1969년의 中·蘇國境衝突時 이 柔軟性을 갖지 못했지만 지금 蘇聯의 뚜렷한 軍事力의 優位性에 直面하여 時急히 이 柔軟性을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47)

나. 變數體系 (假定群)

「가」項에서 살펴 본 여러 論者들의 論點들을 整理하여 보다 客觀적인 正確度を 追求한다는 意味에서 「妥當性의 檢討表」를 作成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가」項 즉 「想定可能한 假定들의 明暗」에서 展開된 여러 內容들 중에서 中·蘇關係의 向方에 관한 假定들만 集中的으로 選擇하기로 한다.

이 경우 假定群은,

- (1)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
- (2) 統制된 對立의 持續

에 관해서 各各 變數體系를 이룬다. 「緊張高調」 즉 「武力衝突의 偶發性」이 假定群에서 빠진 理由는 다음과 같다.

中·蘇間에 武力衝突이 可能하려면, 蘇聯이

- ① 中共의 報復에 의한 희생을 覺悟했을 때
- ② 通常戰爭에 限定하는 같은 意思를 갖고 있을 때
- ③ 中共의 政治的 混亂에 介入할 수 있을 때
- ④ 美國에 대한 戰略的 考慮를 無視할 수 있을 때

에 提起될 수 있는데 現狀況에 있어서는 이 네가지 假定이 하나도 信憑性이 없다고 評價하고 있기 때문이다.

上述한 두가지 變數體系에 대한 常數體系로는

첫째: 華國鋒類의 左傾的 折衷主義

둘째: 鄧小平類의 右傾的 折衷主義

라는 두가지 類型이 해당된다.

(1)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에 있어서의 諸假定

- ① 中·蘇兩國은 50年代中葉에 特徵化 되었던 國家關係의 競爭的 次元으로 「캄·백」할 것이다. (화이팅)
- ② 北京當局의 見地에서 볼 때 中共에 對한 蘇聯의 努力의 縮小의 展望은 十中 八, 九 減縮될 것이다. (헬 페린)
- ③ 美國과 中共이 蘇聯의 對外政策에 對하여 새로운 拘束을 附加해야 한다는 事實은 蘇聯으로 하여금 中共과의 和解를 促進할 수 있다. (툼슨 2世)
- ④ 美·中共間의 理解는, 中·蘇問題解決을 比較的 有利하게 獲得코자 하는 中共의 努力을 強化할 功算이 클 것이다. (헬 페린)
- ⑤ 美·中共關係가 다시 冷却해 진다면, 蘇聯이 비집고 끼어들어, 毛澤東의 後繼者들에게 손을 내밀 準備를 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 (모진고)
- ⑥ 中共의 蘇聯과의 限定的 和解는 日本에 對한 漸高하는 葛藤과 결부될 것이다. (스칼라피노)
- ⑦ 中·蘇兩國의 正常化는 그 時點에 있어서의 美·中共關係에 依存할 것이다. (자고리아)
- ⑧ 많은 中共官僚들은 蘇聯을 中共의 威脅으로 看做하지 않고 있으며, 反蘇的 見解를 갖지 않고 있다. (마이클)
- ⑨ 中共이 美國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斷定할 때 中·蘇의 和解는 可能하다. (다구보)

⑩ 中·蘇兩國의 直事對決이 極度로 「에스칼레이트」되면, 兩國
間에 大規模的인 戰爭回避의 氣運이 자연히 醸成된다.

(다구보)

⑪ 中共內에 蘇聯志向의 潛在勢力이 뿌리 깊이 存在하고 있다.

(가와시마)

(2) 「統制된 對立의 持續」에 있어서의 諸假定

① 마치 東·西카톨릭敎會의 分裂과 같이 中·蘇紛爭은 無限히
繼續될 것이나, 그렇다 하여 어느 側도 決定的 勝利를 取獲
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戰爭으로 歸結하는 事態는 願치 않고
있다.

(피츠제랄드)

② 蘇聯의 對中共介入의 可能性에 對한 中共執權者들의 恐怖는
減少될 것이나, 이것이 반드시 中·蘇紛爭解決의 「찬스」가
增大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도메스)

③ 尙상 上限과·下限을 가진 國家對立의 關係가 中·蘇間에
繼續될 것이다.

(야 노)

④ 中共과 蘇聯間에는 戰爭도 和解도 아닌 狀態가 當分間 繼
續될 것이다.

(히라마쯔)

⑤ 中·蘇兩國間의 이데올로기의 分裂과 共產圈內에 있어서의
優位競爭은 보다 密接한 友好를 排除할 것이다.

(차 리)

⑥ 毛死後 中·蘇紛爭의 強度는 아마도 減退될 것이나 그래도
中共은 蘇聯과의 竝다란 國境을 繼續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 妥當性檢討

(파 이)

「妥當性의 檢討」는 세가지 側面에서 行해진다. 즉,

- ① 適合性(suitability)
- ② 容納性(acceptability)
- ③ 實踐可能性(feasibility)

에 立脚해서 測定된다.

適合性이란, 特定國家의 國家基本目標에 適合한가의 與否를 指稱하여 中共의 경우 이것은 毛澤東路線(Mao Tse-tung Lu-hsien)에 해당할 것이며, 蘇聯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Marxism-Leninism) 특히 레닌主義에 해당할 것이다. 毛死後에 있어서의 毛澤東路線의 意味內容은, 褪色될 氣味는 있으나, 그러나 마치 蘇聯에 있어서의 레닌主義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派가 執權하면, 國家基本目標로서의 毛澤東路線의 名分은 계속 有效할 것이다.

다음, 容納性은 特定國家의 對內外的 反應(respons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中共의 경우에 있어서, 「對美接近·對蘇牽制」政策은, 一部 軍隊幹部, 行政幹部, 黨幹部에게 浮刻한 反應을 안겨 주었다. 容納性이란, 결국, 目體內的 指導層은 물론 一般國民이 特定政策에 대한 受諾度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主要強大國의 認識(perception)과, 이 認識에 따른 態度까지 包含하는 廣範한 領域을 「카버」하고 있다.

세번째의 實踐可能性은, 實用主義的 「어프로치」에서 提起되는 現實的 具體性을 말한다. 예컨대, 特定國家에서 特定政策을 計劃,

立案할 때, 技術的인 問題로 提起되는 財源抽出의 實際的 能力과 같은 것이다. 共產國家의 경우, 이른바 「專」의 立場에서 浮刻될 수 있는 이 實踐可能性은 「紅」의 基本志向性에 가려지는 傾向을 많이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西方國家에 비해, 그 윤곽이 鮮明치는 않다. 그러나 中共에 비해 蘇聯의 경우는 훨씬 鮮明度가 強하다. 따라서 中共의 경우를 主로 想定한 妥當性檢討는 야간의 無理를 隨伴하기 쉽다는 것을 미리 敘述해 두는 바이다. 「表作成」에 있어서는,

첫째 : 妥當性은 任意抽出法 (random sampling)의 形式에 따라 任意의 点数制로 設定해 보았다. 이 경우, 最高点数은 5점으로 定해 보고자 한다.

둘째 : 假定은 重複을 回避하기 위해, 「나, 變數體系 (假定群)」에서 불인 番号를 나열하기로 한다.

(1)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

<表 2>

左傾的 折衷主義類型에 있어서의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

假 定	妥当性 適合性	容 納 性		实践可能性	計
		內的受諾度	外的認識態度		
1	1	2	1	1	5
2		4	5	3	12
3		4	5	4	13
4	5	4	5	4	18
5		3	3	3	9
6		2	1	3	6
7		3	4	2	9
8		2	4	1	7
9		2	5	2	9
10		3	1	3	7
11		2	5	2	9

<表 2>에서 「假定 4」가 18点, 「假定 3」이 13点이다. 따라서 華国鋒流의 左傾的 折衷主義類型에 있어서는 「对美接近·对蘇牽制」政策이 基本志向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表3>

右傾的 折衷主義類型에 있어서의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

妥当性 假定	適合性	容 納 性		美踐可能性	計
		內的受諾度	外的認識態度		
1	4	4	1	2	11
2		5	4	5	14
3		5	3	5	13
4	4	3	3	3	13
5		5	5	4	14
6		4	2	1	7
7		5	5	4	14
8		5	2	4	11
9		5	3	4	12
10		5	1	3	9
11		5	4	5	14

〈表 3〉에서, 「假定 2」, 「假定 5」, 「假定 7」, 「假定 11」이 각각 14点이다. 따라서 鄧小平流의 右傾的 折衷主義類型에 있어서는 對蘇志向의 潛在勢力이 抬頭할 功算이 크다.

요컨대 中·蘇의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豫測은 鄧小平流의 右傾的 折衷主義類型이 毛死後의 中共指導層을 장악할 때, 더 現實性을 띠 수 있다는 結論을 保證해 주고 있다.

(2) 統制된 對立의 持續

〈表 4〉

左傾的 折衷主義類型에 있어서의 統制된 對立의 持續

假定 妥当性	適合性	容 納 性		實踐可能性	計
		內的受諾度	外的認識態度		
1	2	2	5	2	11
2		4	2	2	8
3	5	5	5	5	20
4		5	5	4	14
5	5	4	5	4	18
6		4	5	5	14

〈表 4〉에서 「假定 3」이 20 点, 「假定 5」가 18 点이다. 따라서 「党的 上限線과 国家的 下限線」이라는 特徵을 갖는 「統制된 対立」(Controlled Conflict) 關係가 華国鋒流의 左傾的 折衷主義類型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表 5〉

右傾的 折衷主義類型에 있어서의 統制된 対立의 持續

假 定	妥 当 性 適 合 性	容 納 性		実 踐 可 能 性	計
		內 的 受 諾 度	外 的 認 識 態 度		
1	5	4	4	4	17
2		2	4	4	10
3	4	4	3	3	14
4		3	4	3	10
5	3	3	4	2	12
6		4	3	3	10

<表 5>에서 「假定 1」이 17点, 「假定 3」이 14点이다. 그러므로 鄧小平流의 右傾的 折衷主義類型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의 戰爭으로의 事態帰結」을 願치 않음과 同時에 이 願望은 「統制된 対立關係」라는 特徵에 並合되어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華国鋒流의 左傾的 折衷主義든, 鄧小平流의 右傾的 折衷主義든, 「統制된 対立의 持續」에 있어서는 거의 差異가 없는 것이다.

결국, 두개의 常數體系와 두개의 變數體系를 任意抽出法 (random sampling) 의 形式에 따라 「妥当性檢討」를 해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中·蘇兩國間에는 「當分間」 統制된 対立이 持續될 것이라는 豫測과

둘째 : 武力衝突의 可能性에 비해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이 「꽤」 높다는 推論이 導出된다.

그런데 앞으로의 中·蘇關係의 向方은 「統制된 対立의 持續」보다도, 「慎重히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 側面에서 銳意 檢討되어야 한다는 重要な 認識問題를 이 「妥当性檢討」는 提示해 주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對中共軍事援助의 움직임에서 보여지는 一般論的인 게임理論은 中·蘇關係의 性格分析에 있어서 그 根源的인 側面을 소홀히 할 虛構性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中共은 이러한 美國의 「考慮」를 넘어서 現狀況의 軍事技術的 困難을 美國의 援助에 의하여 補充하여 戰略的 態勢를 有利하게 한 後

蘇聯과의 交渉을 推進하여 限定된 和解 (limited rapprochement)
즉 美·中共間에서 보여지는 和解에로 닥아 갈 수도 있다는 點을
充分히 「考慮要素」로 해야 할 것이다.

7. 中·蘇의 對韓半島政策

中共과 北韓의 關係는 이데올로기의 側面이나 美利追求的 側面에서 모두 現在로서는 密着되어 있기 때문에 「北京·平壤間의 密着度」는 더 強化되어 나갈 것이 展望된다.

北韓이 主張하는 「先 駐韓유·엔軍撤収·後 유·엔加入提案」은 中共目體의 安全保障을 위해서도 利害關係가 完全히 一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美·中共間의 政治的 和解라든가 日·中共國交正常化 등이 長期的인 戰略的 「비전」面에서는 對蘇牽制라는 次元에서 그리고 短期的인 戰術的 「마누버링」面에서는 國內經濟建設의 需要對象國創出이라는 立場에서 나온 것이라면⁴⁸⁾

또한 林彪事件이 미스테리로 그치지 않고 中·蘇對立關係라는 「外在的 要因의 內在化現象」에서 理解가 된다면 앞으로의 中共外交는 從來에도 그랬드시 「革命的 宣傳」의 象徴操作은 表面的으로 는 되풀이 될 것이나, 그 美狀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行動化·具體化시킬 處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⁴⁹⁾ 10全大會의 權力構造에서도 立証되듯이 革命志向性因子(R-factor)는 現實主義政策因子(P-factor)와 抱擁關係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周恩來 디자인」은 여전히 重要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中共外交의 向方은 불가불 毛澤東의 「五·二〇指示」⁵⁰⁾와 이 指示에 입각한 「革命的 現實主義外交」理論을 採択하여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의 戰爭狀態終結措置 즉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에로의 變化」를 위해 北韓을 強力히 밀 中共도 일단 그 具體的인 表現인 UNC의 解体가 成事되고 나면 北韓이 美質적으로 노리고 있는 駐韓美軍撤収에 대해서는 엉거주춤할 것이라는 意見이 많다. 그것은 UNC解体로 自體의 安全保障을 위한 「꼬르동·사니떼에르」(Cordon sanitaire : 緩衝地帶)가 設定될 수 있다고 中共은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對蘇牽制와 對日折止를 위한 지렛대로 駐韓美軍이 活動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毛澤東思想의 活學活用=混用的 現美感覺에 起因하기 때문이다.

75年 4月の 金日成訪中時 鄧小平이 취했던 態度가 이것을 立証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75年 9月 26日 才30次 유·엔總會에서 行한 喬冠華의 強硬한 演說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구구한 解釋이 可能하다.

이 때까지 本論文에서 分析한 內容과 「매취」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推測은 합당한 것 같다. 「韓國을 倭援하는 美國의 키신저 國務長官이 <두개의 韓國>을 두둔하면서 強硬하게 나온 以上 北韓倭援國인 中共도 그만큼 相對的으로 強硬해야만 한다는 것이 喬冠華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強硬히 맞서 北韓을 두둔해 보았댔자 그것으로 當장에 <하나의 韓國>이 이룩되는 것이 아님을 中共은 確히 알고 있는 處地다. 또한 駐韓美軍이 가까운

將來에 撤収할 形便이 아닌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말하자면 中共이 現時點에서 바라고 있을 것으로 推測되는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는 最少限 可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의 韓國> 支持라는 名分을 쥐고 歲月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有利한 局面이 展開될 것으로 豫想하면서 中共은 키신저가 提案한 <두개의 韓國>을 拒絶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事實上 韓半島問題는 歲月을 두고 기다리면 有利해 진다고 하는 것이 中共의 基本的인 認識이다.」⁵¹⁾

바로 이 認識論이 問題의 焦點이 된다. 즉 「革命이 戰爭을 制裁」 한다는 데에는 上述한 「五·二〇指示」의 基本內容이며, 이것의 對外的 表現이 「鄧小平·金日成 共同聲明」 귀절에 包含되어 있으며, 또한 喬冠華의 強硬한 演說에 상세하게 開陳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基本的으로 이 毛澤東의 「五·二〇指示」에 따르는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기다리면 有利해진다」, 「革命이 戰爭을 制裁한다」는 一聯의 케치·프레이즈는 실은 中共의 傳統的인 「持久戰略」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空間을 組織하여 時間을 形成하고, 時間을 組織하여 政治思想工作의 果實인 意志를 形成하라」는 그들의 大衆工作路線 (이 경우 軸이 되는 것은 「時間」이라고 主張하고 있음)에서 볼 때⁵²⁾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궁극적으로 國際關係論의次元에서 觀察하는 美國·日本의 極東戰略을 空洞化하기 위하여 「民族當事者

끼리」라는 口號를 내 세워, 「民族内部問題化」하는 方向에서 設定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問題는 지금의 「아시아의 緊張緩和構造의 非制變化·非安定性」을 中共도 外面할 수 없는 現實狀況에 있다. 적어도 인도차이나의 「半島的 狀況論理」를 그대로 서울에 適用시키고자 할 때 따르는 여러가지 難點 — 특히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專斷的 影響力行使라는 難點 — 을 中共外交政策決定權者들은 知悉하고 있으므로 그 外交行態는 이른바 「民族内部問題」라는 方向으로 몰고가 언필칭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적극 支援하는 姿態에서 對韓半島政策을 展開해 나갈 것이다.

上述한 內容을 綜合하여, 中共의 韓半島政策을 測定하는 分析指標를 整理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가 될 수 있다.

- ① 「鄧·金共同聲明」에서 表出된 革命的 外交路線 「戰爭 可避·革命不可避論」(毛澤東의 五·二〇指示)
 - ② 周恩來 디자인에 따르는 現實主義的 어프로오치
 - ③ 對蘇牽制를 위한 美國이라는 지렛대 — 戰略的 實利와 戰術的 需要의 相關關係
 - ④ 韓半島問題를 日本問題의 範域에서 「세팅」
 - ⑤ 南北韓 當事者의 民族内部問題라는 角度에서의 才3世界論
- 그리고 이 다섯가지 分析指標의 論理는 「革命志向性因子+現實主義政策因子의 有機的인 癒着關係」라는 概念圖式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一次的으로 「美·蘇平和共存的 協力關係」에서 스크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當面한 主敵=中共」을 包圍하는 戰略線上에서 考察될 事이다. 東北亞라는 地域에서 焦點의 對象이 되는 것은 對中共關係이므로 對中共牽制策의 一環으로 韓半島가 浮刻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對中共牽制策인 日·蘇平和條約締結推進問題와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깊은 關係를 맺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日·蘇平和條約締結을 期待하는 軸에서 볼 때 蘇聯은 中共의 對北韓影響度를 加급적 牽制하여 最小限 北韓의 對蘇·對中共 等 距離外交姿勢를 固執하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日·蘇間의 對話 속에서 日本의 對北韓接近을 더 促進시켜 줄 要因의 하나로 登場케 될 憂慮가 있다.

蘇聯이 北韓을 刺戟하면서 까지 韓國과의 交流를 推進할 可望은 보이지 않으나 南·北韓의 現상위치도에서 명실상부하게 韓國이 勝勢를 견지한다면 最少限 北韓의 對南戰略遂行에 對해서 「一定한 條件」⁵³⁾의 不創出을 들어 蘇聯이 制動을 걸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韓半島에 있어서 蘇聯의 利害에 「밸런스 슈트」를 提供하는 가장 合理的인 方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具體的인 空間的 地域的인 範圍의 限界」⁵⁴⁾라는 因子가 韓半島에 있어서 蘇聯의 利害關係에 如何히 「세팅」되어 나가는가 하는 問題는 全적으로 韓國 스스로의 国力伸張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요컨대 韓半島에 있어서의 蘇聯의 利害 — 그 「밸런스 슈트」는 当事者인 南北韓이 決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 點, 韓半島의

4強關係라는 論理는 그대로 「韓半島內的 狀況」이라는 論理로 直結되어 나간다. 55) 레이몽 아롱教授의 말을 빌 필요도 없이 韓半島를 둘러싼 美·日·中·蘇 四強은 서로 눈치만을 살피는 対応型으로 처져 버렸다. 「主導型에서 対応型으로의 變身」을 直視하면서 이제 南北韓이 造成하는 「韓半島內的 狀況」이 더욱 「클로즈 업」되어 간다.

따라서 國際關係論的 次元 一辺倒의 考察은 美·蘇平和共存體制의 死角地帶現出을 說明할 수 없으며, 內戰의 性格과 民族主義 「에토스」의 政治戰略化問題 등에 대해서 有効適切히 対応措置를 講究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의 全地域的인 規模에서의 世界戰略이건 韓半島에 있어서의 外交姿勢이건, 그것의 基本志向性を 分析하기 위해서는 역시 「美·蘇平和共存의 協力關係+條件附暴力革命支援方式」의 相互癒着聯関性 56) 을 有機的으로 結合하여 考察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認識論이 基盤이 된다면, 「사이공의 寂寞」은 說明이 可能하며, 더 나아가 蘇聯의 對韓半島政策도 客觀的·科學的으로 檢証이 容易해 질 수 있다.

8. 北韓의 對中政策의 基本方向

北韓은 中·蘇의 「統制된 對立關係」에도 不拘하고, 蘇聯과 中共의 兩國에 對해 友好關係를 維持코자 하는 基本方向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態度는 언필칭 北韓의 「自主路線」의 對外的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그 傾斜度는 中共쪽으로 약간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蘇聯과의 關係도 友好的으로 持續코자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對中·蘇等距離外交」에서 各己 實利를 追求코자 하는 속셈에서이다.

中共·北韓의 密着關係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點은 美·中共接近에 對한 北韓의 肯定的인 評價(이른바 金日成의 白旗論(71. 8. 6)⁵⁷⁾과 經濟協力協定(71. 8. 15)·軍事援助協定(71. 9. 6)을 各各 締結했다는 事實이다.

요컨대, 北韓이 美·中共接近에 對해서 積極的인 評價를 表明해 준데 對한 代價로 北韓측이 中共으로부터 具體的인 軍事的 保證을 받아 났을 것이라는 「이네올로기와 實利追求의 相互聯関性」을 클로즈업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相互聯関性은 「R-factor (革命志向性因子) + P-factor (現實主義的인 實利追求因子)」의 感着을 着眼케 한다. 따라서 「北京·平壤간의 密着度強化」라는 側面은 R-factor 와 P-factor 의 兩次元에서 아울러 銳意 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問題把握態度는 결국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과 實際的인 具體化過程을 分析하는데 重要的 「準拠를」(frame

of Reference) 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對中·蘇政策의 基本方向은 「實狀으로서의 中·蘇, 北韓 3角關係」와 그리고 이 3角關係에 根本的인 그늘을 던지고 있는 「美·蘇平和共存体制의 具體化現象」과 「美·中共의 政治的和解」 및 이에 隨伴되는 「美, 中, 蘇 相互交互逸脫作用」의 테두리 내에서 그 羅針盤의 進路는 「流動性」을 떨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流動性은 北韓의 對中·蘇政等의 基本方向에 必然的인 考慮要素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北韓에만 限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의 政治狀況에 適用하는 이른바 「아시아의 緊張緩和構造의 非制度化·非安定性」 문제에서 導出되는 것이다.⁵⁸⁾

9. 北韓·中共 및

北韓·蘇聯의 關係現況

便宜上·1975年 4月 18日부터 1976年 8月 10日까지의 關係現況을 살펴보면서, 北韓의 이른바 自主路線의 表現인 對中·蘇等距離 外交政策을 立証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訪問, 招請은 高位 및 政府代表團수준에 局限했다.

우선, 北韓의 訪問外交의 경우, 中共, 蘇聯에 各各 1次이지만, 中共訪問에 있어서는 直接 金日成이 團長이 된 平壤 수뇌진의 行脚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1975年 4月 18日에서 27日까지의 整整 10日間에 걸친 金日成 行脚과는 대조적으로 1976年 1月 27日의 蘇聯訪問은 一般的으로 政府代表團이라고 銘記하고 있다. 이것이 立証하는 바는 對中·蘇等距離 外交姿勢라는 基本 태두리內에서 密着度는 역시 北京쪽이 「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 北韓의 招請外交의 경우, 中共이 5回, 蘇聯이 2回이다. 中共의 경우, 當時 中共黨政治局常務委員 겸 黨總書記 겸 中共軍總政治部主任 겸 國際院 副總理인 張春橋가 直接 團長이 되어 1975年 9月 21日부터 27日까지 一週間, 中共黨代表團을 인솔하여 平壤을 訪問했다. 이에 대해 蘇聯共産黨 活動家代表團이 1976年 6月 17日 平壤을 訪問한 바 있다. 따라서 招請外交의 경우도, 訪問外交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協定調印에 있어서는 3:8로 蘇聯이 約 3倍 弱하다.

이 경우 留意해야 할 協定은, 1975年 10月 27日에 蘇聯과 調印한, 蘇聯船舶에 대한 奉仕業務協定이다. 이것은 北韓港口에서의 蘇聯船舶의 給油, 給水, 修理作業을 규정한, 最初로 맺어진 協定調印이라는 意味에서 그 意味하는 바가 深刻하다.

10. 北方3角關係의 展望

이 展望分析에 必要한 여러 論點이 檢討되었거니와 그 檢討들을 集中的으로 表現하면 대충 다음과 같이 壓縮이 될 것이다.

가. 中·蘇關係는 지금 現在의 「統制된 對立」이 持續될 것이다.

나. 이 基本的인 關係展望外에 可能性으로서는 「偶發的인 武力衝突」보다는 「限定된 和解」가 關心の 對象이 된다.

다. 北韓의 「自主路線」이 던지는 意味에 重點을 맞출 것이다.

上述한 세 가지 「考慮要素」가 相互 複合的으로 投影되어 나올 結果는 적어도 北方3角關係次元에 있어서는 中共의 主役이 華國鋒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毛沢東 周恩來 대 브레즈네프의 從來의 關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金日成의 이른바 對中·蘇等距離姿勢와 그것의 對外的 表現인 自主路線의 堅持努力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들 相互作用은 최소한도 南方3角關係가 큰 衝擊을 加하지 않는다면 종래와 같은 類型을 堅持할 것이다.

따라서 北方3角關係의 展望은 바로 即目的인(an sich) 北方3角關係 그자체의 次元에서 볼 때에는 크다란 變動은 없을 것이다.

우선 華國鋒體制가 周恩來디자인을 계속 追求하는 과정에서 基本的으로 毛沢東路線의 承繼者 즉 「中道左派」의 外交行態를 堅持할 것이라는 앞에서 分析된 여러 結論들을 投影시켜 볼 때 中·蘇關係 그자체는 지금 現在의 「統制된 對立」이 持結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가령 鄧小平流의 右傾的 折衷主義類型이 中共指導層을 形成할 경우 「패」준다고 評價되는 蘇聯과의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이 豫見될 수는 있다. 그러나 히다 마쯔教授가 意味深長하게 提起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中共에 있어서는 이른바 當權者(實權派), 走資派의 對蘇聯政策支向은 「戰術的」인 次元에 不過한 것이다. 요컨대 右傾的 折衷主義가 登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毛沢東路線의 테두리內에서의 「國家 對 國家」의 關係改善의 進展勢力이라는 次元에서 검토될 性質의 것이므로, 「限定된 和解의 可能性」提起는 그대로 中共의 對蘇關係의 急激한 變化를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妥當性檢討」의 意義는 어떤 形式論理的인 兩分法에서 考察되어서는 부족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路線의 差異」와 「外交의 現實主義的 行態」의 有機的인 弁證法的 思考에서 解明되어야 나오는 것이다.

세번째의 考慮要素인 北韓의 自主路線姿勢堅持는 이 北方3角關係 展望에 그러므로 幅을 가지고 등장할 수 있다. 周知하다시피 60年代에 나타난 모스크바 및 北京 兩者間에서의 時計추 같은 偏向姿勢는 앞으로는 出現치 않을 것이라는 推理가 可能하다. 그 理由는 대충 다음과 같다.

北京政變後 北韓의 對蘇關係, 對中共關係를 볼 때, 70年代에 접어들면서 表明했던 對中·蘇等距離外交姿勢를 그대로 堅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行態的인 分析方法보다는, 「自主路線」이 안고

있는 基本的인 意味를 간취해야 할 것이다.

自主路線은 北韓만의 占有物이 아니고 이른바 民族的 共產主義의 카테고리속에서 導出된 結果物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外交行脚을 論할 때 유독 北韓에만이 姿勢를 投影시키는 現象論的인 分析은 深層論理를 欠如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共產主義世界는 모노리트的인 紐帶를 緩和하고 具體的 歴史的 狀況에 適應하는 그런대로의 自律性이 形成되어가고 있는 中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北方3角關係의 展望分析에 있어서는 이러한 趨勢的인 自主路線의 意味內容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韓半島의 狀況에 있어서의 平壤의 特殊性이 銳意 剔抉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의 경우 이른바 第3世界의 一員이라고 自請하고 나서는 外交態度를 分析해 보면 基本的으로 共同意識的인 次元에서는 北京과 密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北韓의 兵器體制를 비롯한 모든 經濟發展에 소요될 施設시스템은 역시 모스크바 主導型이다. 바로 이러한 事實에서 루마니아하고는 그 性格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共產越南과 유사한 點을 示唆해 준다.

이러한 北韓의 對中·蘇等距離外交 자세에서 최대의 관심사항은 平壤이 모스크바와 北京 中間에서 허우적거린다는 認識의 修正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中·蘇가 「統制된 對立」을 持續하거나 「限定

된 和解」를 試圖하거나 間에 北韓의 對中·蘇等距離外交姿勢에는 為함이 없다는 事實이다. 但, 南方3角關係가 어떤衝擊을 加하지 않는다는 條件下에서이다.

이제 北方3角關係 그자체 (-an sich) 만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提起될 수도 있는 南方3角關係의 北方3角關係에 대한 衝擊을 對目的 (fur sich) 으로 연관시켜서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裏 中·蘇關係는 中·蘇두나라만의 關係가 아니라 第3國인 美國이 깊숙히 介入된 3者關係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美國의 主役이 바뀐 狀況에서 假定에 不過하더라도 이 3者關係가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想定할 수 있는 問題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北方3角關係에 있어서는 그 主要한 軸인 北京의 指導層이 바뀌었으나 모스크바와 平壤은 變動이 없다.

(나) 따라서 美國의 影響은 자연히 北京에 대해서 인데 이경우

- ① 카터行政府가 追求할 수 있는 「스타일」은 이른바 「美·日·中共」聯合의 對蘇牽制姿勢인 것이다. 美國의 새로운 行政府에서 主要한 安保外交政策을 요리할 브제진스키教授의 論理로 보면 이 姿勢는 可能性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最大관심은 이러한 美國의 움직임을 華國鋒體制가 如前히 受諾하느냐 하는데 있다. 앞에서 分析한 華國鋒體制의 性格으로 보아 戰術的 需要의 對象國으로 美國이 클로즈·업되기 때문에 西方的인 게임理論에 立脚한 이러한

美國의 追求는 中共의 「戰略的 態勢」만을 強化시켜 주는 「마이너스 効果」 밖에는 創出치 못할 것이다.

이 경우 平壤에게 如何한 「주름살」을 초래할 것인가? 北韓은 美國의 새로운 軸概念인 「美, 日, 中共」協調體制에 의한 對蘇牽制姿勢에서 언필칭 그들의 對美接近의 窓口를 더욱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냉엄한 사실이다.

따라서 「美, 日, 中共」의 새로운 軸概念은 北方3角關係에 대해서 戰術的 마두버링의 뒤안길에서 戰略的 實利를 獲得할 수 없는 마이너스 要因을 創出할 뿐만 아니라 北韓에 대해서는 對南戰略의 一環인 對美單獨平和條約協商의 窓口를 넓혀 주는 始初點을 제기할 수 있다는 事實을 直視해야 할 것이다.

- ② 美國의 新行政府가 北方3角關係의 變數인 中共에 대해 試圖코자 하는 方式에는 對蘇牽制는 日, 中共 兩當事國에 맡기고 美國은 後見人으로 처져 버릴 수 있는 點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카터가 가장 力點을 두고 있는 日本의 役割重視로 볼 때 이 方式도 想定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선 日, 中共平和條約 체결이 추진될 것이며 이것은 逆으로 日, 蘇關係를 긴장케 할 것이다. 이 緊張을 美國이 무마하고자 할 경우 美國은 對中共카드를 自由裁量으로 處理할 수 있는 振幅을 좁히는 結果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이 補完策으로 술레 신저前国防長官의 「前進戰略基地」概念이 追加될 수도 있다.

문제는 日, 中共 兩当事國으로 하여금 對蘇牽制를 試圖하고자 할 경우, 새로 등장할 「후꾸다」(후꾸다가 만일 등장치 않는다 하더라도 保守本流에게 自民黨리더쉽이 돌아가기, 때문에 후꾸다의 色彩는 그때로 維持됨) 政權이 美國의 意圖를 受諾할 수 있는나의 與否일 것이다. 美國의 이러한 方式이 北韓에게는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첫째: 北韓의 對日接觸을 促進시킬 것이다.

둘째: 蘇聯의 不安을 利用하여 보다 有利하게 蘇聯의 援助를 獲得케 될 것이다.

上述한 分析을 통해 아래와 같은 問題點이 導出한다. 즉 美國의 새로운 軸概念인 「美, 日, 中共」 協調體制에 의한 對蘇牽制姿勢이건 日本의 役割을 重觀하여 中共과의 연계를 日, 中共 兩当事國에게 맡기고서 對蘇牽制를 試圖하고자 하는 姿勢이건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北方3角關係에 投影될때 「마이너스」 要因이 보인다는 事實이다.

결국, 北方3角關係의 展望은

- ㉞ 그자체 (an sich) 만으로 볼 때에는 큰 變動이 없을 것이며
- ㉟ 南方3角關係 특히 美國의 새로운 試圖라는 面과 對回的 (für sich) 으로 연결시켜 볼 때에는 「마이너스」 的인 效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展望이 可能할 것이다.

11.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北韓이 取할 수 있는 「카드」를 살펴 보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이 檢出되어 나올 수 있다.

우선, 北方 3角關係 그 自体로 볼때에는 北韓은 現在의 姿勢를 持統할 수 밖에 없다.

다음, 美國의 「카터」新政府가 追求하는 姿勢에 따라서 北韓은 새로운 戰術的 效率性을 企圖코자 할 것이라는 點이다.

첫째: 「美·日·中共」이라는 새로운 協調軸으로 對蘇牽制를 試圖코자 美國이 姿勢變更을 할 경우, 北韓은 對美單獨平和條約協商을 추진할 窓口를 擴大하고자 획책할 수 있다는 點이다.

둘째: 美國이 日本, 中共 두 나라로 하여금 對蘇牽制의 主軸을 形成코자 할때

- ① 北韓의 對日接近을 促進시킬 憂慮가 있으며,
- ② 反面, 蘇聯의 不安을 利用한 北韓의 蘇聯援助 획득의 大單位化를 초래할 것이라는 點도 아울러 想定할 수 있다.

그런데, 「日本役割의 重視」에서 招來되는, 「日, 中共 協調軸」을 가령 美國이 구상한다고 할 경우, 두가지 문제점이 露呈될 것이다. 그 하나는 日本側이 이 姿勢를 受設할 수 있는지의 與否이고, 또 하나

는 中共에 대한 「바아게이닝·파워」를 美國이 축소시킨다는 두가지 点이다. 즉 日·中共協調軸은 日·蘇간의 緊張을 加速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日·蘇의 緊張關係를 美國이 調整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美國이 調整役을 맡고 나설때, 利用할 수 있는 對中共政策의 振幅이 축소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補完하기 위해 「前方戰略基地」 概念을 追加할 수 밖에 없다는 一聯의 連鎖作用이 예견될 수 있다.

上述한 北韓의 「카드」 分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直視할 수 있다.

- ① 美國이 戰術的 마누버링을 展開하지 않고, 70年代에 設定한 「닉슨·독트린」에 따른 「中·蘇紛爭의 戰略的 利用」 姿勢를 견지해 나간다면, 北韓은 지금 混迷를 거듭하고 있는 狀況에서 「카드」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事實이다.

北韓의 今後의 政策路線에 대해서, 理論的 可能性까지 포함해서 想定할 수 있는 選択肢는 다음과 같다.

- ㉓ 自力更生路線 (현재의 政策은 이에 가깝다)
- ㉔ 強硬路線 (게바라路線의 採択)
- ㉕ 對中·蘇等距離姿勢의 修正
- ㉖ 現實路線 (南北對話再開 혹은 自由主義陣營과의 接觸)

深化등)

上述한 네가지 경우 現在의 北方3角關係가 지속하고, 美国이 北方3角關係에 새로운 衝擊을 가하지 않는다는 前提가 설정되면, 北韓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이른바 自力更生이라는 現在의 政策을 基本的으로 추진하면서 自由主義陣營과의 接觸을 戰術적으로 擴大해 나간다고 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② 問題는 美国의 北方3角關係에 대한 衝擊에 있다.

『北方3角關係의 展望』에서 이미 分析한 바와 같이 「美, 日, 中共協調軸」이건, 「日, 中共協調軸」이건, 그 어느 軸을 가지고서 對蘇牽制를 試圖하고자 할 경우, 北韓의 政策選擇肢를 擴大해 주는 「마이너스」效果를 안겨준다는 事實이다.

12. 우리의 對策方向

「對策方向」은 「北方3角關係의 展望」과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分析에서 導出되어 나온다.

基本的으로 「닉슨·독트린」에 입각한 「中·蘇紛爭의 戰略的 利用」을 美國이 계속 堅持하여, 現在의 「北方3角關係」에 衝擊을 加하지 않도록 努力하는 面에서, 우리의 對策은, 根源的인 方向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이 北方3角關係에 衝擊을 加하지 않는다면, 北韓의 政策選擇肢는 지금 現在 전개하고 있는 一種의 「北韓版自力更生路線」밖에 없으므로, 北韓은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이른바 對美單獨平和條約協商의 窗口는 開設되기엔 相當히 어려운 諸條件을 孕胎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南北韓狀況이 계속되면, 우리의 政策選擇肢는 擴大될 수 있으나, 反比例로 北韓은 외풍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對策方向」은 一次的으로 對蘇牽制를 서두르는 나머지, 「美·日·中共協調軸」이나 「日·中共協調軸」을 구상코자 美國이 試圖할 경우, 이 戰術的 마누버링(操作)이 美國에게 戰略的 美利를 획득케 할 수 없다는 冷嚴한 現實的 認識論을 開陣, 彈力的으로 美國의 朝野指導者들에게 接觸해 가는 姿勢를 堅持하는 데에 있다.

만일, 카터新行政府가 새로운 軸概念을 導入할 경우, 造成되는

北韓의 政策選擇肢의 多樣性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對処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美, 日, 中共協調軸」에 의한 對蘇牽制姿勢의 結果, 야기될 수 있는, 北韓의 對美單獨平和條約協商추진에 對해서
- ㉠ 當事国会談의 妥當性을 계속 고취해야 하며,
- ㉡ 교차承認의 framework 속에 北韓의 對美協商을 묶어 두는 努力을 集中해야 할 것이다.
- ㉢ 그러나 北韓의 現在狀況, 外債償還不能, 外交行態의 拙劣(예컨대 밀수外交), 그리고 非同盟會議의 南北問題優先視 등에서 제기되는 北韓의 디레머를 前提로 할 때, 北韓이 當事国会談이나, 교차承認에 應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能動的으로 南北韓問題를 「民族内部問題化」하여, 主導的인 마아케이닝을 계속 발휘하여, 時間을 持續化시키면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既定事實化하는 方向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決定的 제기는 역시 계속적인 国力伸長이다.
- ② 美国이 日本의 役割을 重視하는 나머지, 「日·中共協調軸」에 의한 對蘇牽制姿勢를 채택할 경우, 야기되는 北韓이 취할 수 있을 政策選擇肢 즉 北韓의 對日接近 促進과 蘇聯의 對北僑援助의 大單位化에 對해서
- ㉣ 保守本流로 환원될 日本自民党政權 특히 佐藤榮作 前首相의 「皇太子」格인 福田政權(만일 福田가 執權하지 않더

라도 그 政策의 內容은 同一)에 대하여, 「닉슨, 사토共同聲明」에 포함된 「韓國事項」의 重要性을 계속 환기하는 外交 行態가 加速이 되어야 한다.

- ㉔ 蘇聯의 對北韓援助의 大單位化 문제에 있어서는, 카터 行政府에서 顯職에 있던 아드바이저로 있던 상당히 영향력을 行使할 수 있는 슬레신저 前國防長官의 「前進展開戰略」의 妥當性을 계속 念頭에 색이도록 하는 安保外交의 能動的 展開가 切實하다.

요컨대 『北方 3角關係展望과 그것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이라는 本 特殊課題研究에서, 提起되는 「우리의 對策方向」은 基本的으로 워싱턴街道에서 發見되어야 하는 것이다. 北京과 모스크바에 대한 канал이 없는 狀況에서 평양의 政策選擇肢를 의 굵으로 몰아, 動脈硬化할 수 있는 對策모색은, 결국 「서울-워싱턴, 東京」라인에 있는 것이며 그 軸인 워싱턴에서 集中的으로 展開되어야 한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카터 新行政府의 出帆과 함께, 우리 韓國이 取할 수 있는 對美外交의 「비헤이비어」가 그 어느때 보다도 能率을 期하기 위해서는, 美國의 카터政府와 民主黨이 多數인 美議會에 대한 彈力的 分析이 探盡化되어야 하며 따라서 美國國內政治가 意味하는 諸側面에 대한 새로운 感覺의 「안테나」를 계속 豎아야 할 일이 甚긴하다.

注 記

- 1) 岡部達味, 『路線鬭争の性格と その 諸側面』, アジア・クォーターリー, 第8巻 第2号 (1976年一, 4~6月), 15面,
- 2) 労働者と 農民, 都市와 農村, 精神労働과 肉体労働의 3差를 縮少코자 하는 努力.
崔 榮, 『아시아的 近代化發展論에서 본 毛沢東思想과 主体思想의 比較研究』, 第1回合同學術大會論文集 (서울: 韓國政治學會, 1975), 106面.
- 3) 1975年 12月27日, 中共은 74年 3월에 헬리콥터로 新疆省의 北部國境地帶에 落下한 蘇聯國境警備隊所屬의 3名을 突然히 釈放한 事件을 가르킨다.
- 4) Ralph N. Clough, A. Doak Barnett, Morton H. Halperin and Jerome H. Kaha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rms Control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p.17-19.
- 5) 『中共新黨章的分析: 附錄 一, 周恩來在中共第十次全國代表大會上的政治報告』, 月刊 中共研究, 第七卷第九期 (一九七三年九月), 四一面:
「現在, 蘇修是擊東擊西, 加緊在歐洲的爭奪, 加緊向地中海, 印度洋以及一切可以伸手的地方擴張」

6) 最小限核抑止力の 戰略에 關係서는 下記 著書 參照.

William W. Kaufmann,

The McNamara Strategy (New York: Harper & Row, 1964)

pp. 50-53.

7) 現在 中·蘇國境附近에 配置되어 있는 蘇聯軍의 兵力은

47 ~ 49 個師團으로 蘇聯軍全地上兵力의 4分之 1 이다.

極東에로의 兵力移送이 없는 限, 現兵力으로서는 반드시 對中
共攻擊에 充分한 兵力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8) Report of Secretary of Defense James R. Schlesinger

the Congress on the FY 1976 and Transition Budgets,

FY 1977 Authorization Request and Fy 1976-1980

Defense Programs (Washington, D.C. : U.S. Govern-

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5, 1975), pp. II-16 ~

II-17.

9) 世界週報, 1975年 2月 4月号, 33面.

10) 미사일 과 航空機의 生産을 主管하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는

第7機械工業部部長에 새로 就任한 注洋은, 1966年以來, 吉林軍

區副司令員, 瀋陽軍區副司令員을 歷任하여, 오랫동안 陳錫聯(瀋陽

軍區司令員) 아래서 參謀로 勤務한 軍隊幹部이다. 이와 같은

人事는, 國務院副總理로 就任한 陳錫聯이 今後 이러한 人材를

驅使하여 近代的인 國防軍建設로 向해서 指導的 役割을 遂行

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1) 志願軍이란 韓國戰爭에 介入한 中共軍의 呼稱으로서 同志願軍의 司令員 彭德懷는 第1野戰軍司令員이었다. 그런데 第1野戰軍은 國共內戰時 成都攻略에서 第2野戰軍과 共同作戰을 展開하여 이 以後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崔 榮, 『中共軍部勢力的 性向과 版圖』, 新東亞, 第147号

(1976年 11月), 92面 - 101面 參照.

12) 「短促突擊戰術」이란, 敵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며 무턱대고 兵力을 分散하고 攻擊하는 消極防禦의 戰術思想을 뜻한다.

13) 「一點兩面」이란, 優勢한 兵力을 集中하여 一點에서 敵의 弱點을 突破하고 同時에 一部兵力을 割愛하여 各方面에서 包圍殲滅하는 것을 뜻한다.

14) 「四快一慢」이란, 敵에 대한 前進, 攻擊準備, 突破後의 戰果 擴充, 進擊의 네가지 點을 敏速히 行하고, 攻擊實施가 決定되면 그 準備를 淸淸히, 充分히 進陞시키는 戰術을 뜻한다. 즉 前進, 集中, 擴大, 追擊은 빨리하고, 總攻擊開始는 늦춘다는 것이다.

15) Brehnev, "Report to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XXIV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1, (March 1971), p.34.

16) Address of A.U. Modogoev, Pravda, March 5, 1976.

- 17) Address of T.U. Usubaliev, Pravda, February 28, 1976.
- 18) Address of D.A. Kunaev, Pravda, February 26, 1976.
- 19) Address of M.Z. Shakirov, Pravda, February 29, 1976.
- 20) Address of F.S. Goryatsev, Ibid.
- 21) Resolution of XXIV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by Report of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XXIV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II (March 1971), p.221.
- 22) L.I. Brezhnev, "Resolution of XXIV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Militant Program of Activity of the Soviet Trade Union", Pravda, March 21, 1972.
- 23) "China after X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Kommunist, No.12, 1974, p.98.
- 24) S.C. Yurkov, "24 years of PRC: Sums and Problems," Problems of the Far East, No.4, 1973, p.49.
- 25) "Maoist Regime on new Camp," Kommunist, No.12, 1975, p.113.
- 26) Pravda, October 1, 1974.
- 27) Pravda, October 1, 1975.

- 28) M. Georgiev, "26 Years of PRC," Pravda, October 1, 1975.
- 29) Allen S. Whiting, "China's New Diplomacy ——— A Symposium (I)," Problems of Communism, vol. XX (November-December 1971), p.5.
- 30) Morton H. Halperin, Ibid., p.32.
- 31) James C. Thomson, Jr., "China's New Diplomacy ——— A Symposium (II),"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 (January-February 1972), p.50.
- 32) A.M. Halpern, Ibid., p.56.
- 33) David Mozingo, Ibid., p.62.
- 34) Robert A. Scalapino, "China and the Balance of Power," Foreign Affairs, vol.52, No.2 (January 1974), p.384.
- 35) Donald S. Zagorie, "Mao's Role in the Sino-Soviet Conflict," Pacific Affairs, vol. 47, No.2 (Summer 1974), pp.139-153.
- 36) Franz Michael, "China and the Soviet Union: Waiting for Mao to Die?" Current History, vol. 69, No. 408 (September 1975), p.67, p.104.
- 37) 世界週報, 1976年 5月 25日, 5面
- 38) Ibid.
- 39) 川島弘三, 『中ソ戦争の可能性』, 軍事研究, 第11巻, 第123号 (1976年6月), 83面。

- 40) C.P. FitzGerald, "China's New Diplomacy —— A Symposium (I)," Problems of Communism, vol. XX (November-December 1971), p.24.
- 41) Juergen Domes, Ibid., p.28.
- 42) 矢野 暢. 『ソ連の外交とアジア』. アジア・クォーターリー, 第5巻 第1号(1973年1~3月), 106面.
- 43) 平松茂雄『中ソ対立の背景と現実: 中ソ戦争論によせて』. アジア・クォーターリー, 第6巻 第3号(1974年7-9月), 71面.
- 44) P.R. Chari, "US-USSR-China Interaction: The Strategic Plane," China report, vol. XII, No.1 (January-February 1976), p.41.
- 45) Lucian W. Pye, "China after Chou En-lai," Current History, vol. 71, No. 419 (September 1976), p.80.
- 46) Robert W. Barnett, "China's New Diplomacy —— A Symposium (I)," Problems of Communism, vol. XX (November-December 1971), p.20.
- 47) Richard L. Walker, "China's New Diplomacy —— A Symposium (II),"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 (January-February 1972), pp.65-66.
- 48) 崔 榮. 『美国・中共接近の底流』. 新東亜, 1971年12月号, 78面--87面.

- 49) Peter Van Ness,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Peking's Support for Wars of National Liberation*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pp.244-245.
- 50) 藤井満洲男. 『中国外交の理論的基礎』, アヅク・クオータリー, 第5巻 第4号(1973年10月~12月), 14面-24面.
- 51) 1975年 9月27日子 東亜日報3面, 『拒否에 부닥친 「키신저提案」』에서 引用.
- 52) Edward L. Katzenback, Jr., "Time, Space and Will: The Politico-Military Views of Mao Tse-tung," in Lt. Colonel T.N. Greene (ed.), The Guerrilla and How to Fight Hi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2), p.14.
- 53) Marxism-Leninism on War and Army (Marksizm-Leninizm o Boine i Armii) (Moscow: Voenizdat Ministerstva Oborony Soiuza SSR, 1968).
- 54) Pravda, May 16, 1973.
- 55) 崔 榮, 『蘇聯의 利害와 韓半島』, 月刊 中央, 1975年 7月号, 116面-122面.
- 56) 防衛論集(東京: 日本防衛研修所) 第11巻 第1号(1972年 6月), 157面-172面 参照
- 57) アヅア動向年報: 1972年版 (東京: アヅア経済研究所, 1972年 3月), 83面 参照.

58) 武者小路公秀, 『アジアの緊張緩和の構造』, アジア・フォータリー,
第6巻 第2, 3合併号(1973年 7月), 2面-15面参照).